

석사학위논문

탐구공동체 모형을 활용한 고등학교
[도덕] 수업 사례 연구

지도교수 양길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전공

홍 성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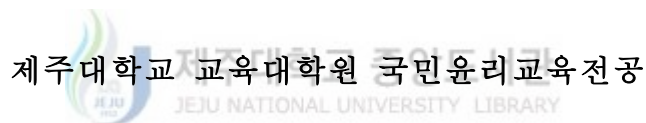
2005년 8월

탐구공동체 모형을 활용한 고등학교 [도덕] 수업 사례 연구

지도교수 양길현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4월 일



제출자 홍성호

홍성호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5년 6월 일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국문초록>

탐구공동체 모형을 활용한 고등학교 [도덕] 수업 사례 연구*

홍 성 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전공

지도교수 양 길 현

오늘날 우리는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과거 어느 사회보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변화의 폭이 훨씬 넓은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모습은 세계화·정보화·다원화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왔다. 이런 가운데 급격한 가치관의 혼란, 사회정의의 부재, 인간 경시 풍조, 공동체 의식 결여, 이기주의 팽배, 환경문제 등의 도덕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점을 극복하고 건전하고 도덕적인 인간으로 삶을 영위하도록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도덕적 위기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학생 개인이 스스로 도덕적 문제에 대해 공동체 구성원의 협동을 전제로 탐구활동을 하여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며 합리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게 하는 탐구공동체 수업이야말로 실로 살아있는 도덕교육이 되기 위한 기존의 도덕교육의 한 대안으로써, 공교육 부재 현상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오늘날 학교 교육의 새로운 도덕교과 수업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런 관점에서 탐구공동체 모형의 이론적, 실천적 입장을 고등학교 [도덕]수업에 적용함으로써 그것이 갖는 의의를 실제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데 있다.

탐구공동체 활동은 자율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을 신장시켜 주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만이 옳다고 고집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도 옳을 수 있다는 열린 마음과 관용의 태도를 함양시켜 주어 이러한 정신으로부터 공동체에 대한 배려와 타협적인 정신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교수-학습 모형이다.

탐구공동체수업을 통해 확실한 대안과 해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무심코 지나쳐 버리던 사실들에 대해 자료를 찾고 토론을 하며 참여하는 과정, 자신의 비판적 사고, 공동체의식을 형성해 가는 과정 그 자체가 더욱 의미 있다고 본다. 살아있는 지식을 찾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가는 탐구공동체 수업이야말로 흔들리는 오늘날의 도덕과 교육에 바람직한 교수-학습 방안으로 확산시킬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 본 논문은 2005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한계	4
II. 고등학교 [도덕]교과의 특성과 탐구공동체 모형	6
1.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도덕]	6
2. 고등학교 [도덕]과의 특성에 맞는 교수-학습방법	14
3. 탐구공동체 모형 활용의 의의	19
III. 탐구공동체 교수-학습 모형의 이론적 특성	22
1. 탐구공동체 모형의 이론적 배경	22
2. 탐구공동체 모형의 특성과 원리	25
3. 탐구공동체 모형의 활용 방안	31
IV. 탐구공동체 모형의 고등학교 [도덕] 수업에의 활용	47
1. 탐구 주제의 선정과 기본 계획	47
2. 탐구공동체 교수-학습의 전개	52
3. 결과 분석 및 논의	70
V. 결 론	81
참 고 문 헌	85
<Abstract>	88
부 록	90

표 목 차

<표 1> 탐구공동체 학습 지도안	39
<표 2> 개인별 수업 평가지(예시)	40
<표 3> 공동체(조별) 수업 집단 평가지(예시)	41
<표 4> 고등학교 [도덕] 연간지도 계획표	47
<표 5> 연간 탐구 주제 선정표	48
<표 6> 본시 교수-학습 지도안 1	53
<표 7> 탐구지 1	54
<표 8> 본시 교수-학습 지도안 2	61
<표 9> 탐구지 2	62
<표 10> 탐구지 3	63
<표 11> 탐구공동체 수업에 대한 참여도	71
<표 12> 탐구공동체 수업을 위한 근거(탐구지) 마련	71
<표 13> 탐구공동체 수업을 위해 가져야 할 태도	72
<표 14> 탐구공동체 수업이 ‘공동체에 대하여 배려하는 태도’ 함양 에 미친 결과	73
<표 15> 탐구공동체 수업이 ‘합리적 문제해결 능력’ 신장에 미친 결과	74
<표 16> 탐구공동체 수업의 파급 효과	76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우리는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과거 어느 사회보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변화의 폭이 훨씬 넓은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모습은 세계화·정보화·다원화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왔다. 이로 인해 급격한 가치관의 혼란, 사회 정의의 부재, 인간 경시 풍조, 공동체 의식 결여, 개인 및 집단 이기주의 팽배 등의 도덕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¹⁾ 이러한 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점을 극복하고 건전하고 도덕적인 인간으로 삶을 영위하도록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그런데 학교 교육으로 들어가 보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교실붕괴, 학교 붕괴니 하는 말들이 학교 교육의 현실을 대변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

교실붕괴, 학교붕괴는 이제 낯선 단어가 아니며 세상이 워낙 근본적으로 변하여 기존의 교육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그러나 위기상황은 그 반전성을 잘 이용할 수만 있다면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다. 교육의 문제는 곧 사회문제이며 국가적 문제이기 때문에 위기에 있는 학교교육에서 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전문가가 되기를 요청 받고 있다. 학생들에게 합리적인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길러 훌륭한 도덕적 인격을 지닌 도덕 행위자를 만들어 내는 데 목표를 두는 도덕과 교육 담당자의 역할은 더욱 크다고 하겠다.²⁾

다양한 가치관의 사회에서 자라난 지금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내용과 방법을 강

1) 김을임(2003), “토론식 수업을 통한 초등학교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진주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 p.1.

2) 권순덕(2003), “고교 도덕과 탐구공동체 지도사례”, 「교육마당 21」, 7월호, 교육인적자원부, p.118.

요하는 것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다양한 특성을 보이는 학습자에게 천편일률적인 획일적인 과제, 방법, 교재로 학습을 강요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교육을 사회의 실생활에 이어가지 않으면 안되며, 자신이 갖고 있는 가능성에 눈뜨고, 서로 보완해 주고 도와주는 참된 배움의 과정으로 바꾸어가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우리의 학교 현실에서 학생들의 가치관의 확립과 올바른 삶의 선택을 돕는 도덕 교육의 방향은 현대 사회의 복잡한 현실이 고려된 가치 갈등의 상황 등을 잘 반영한 교육내용 및 방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³⁾ 따라서 갈등의 원인이 매우 복잡해지고, 그러한 갈등이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폭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학생 개인이 스스로 도덕적 문제에 대해 공동체 구성원의 협동을 전제로 탐구활동을 하여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며 합리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게 하는 탐구공동체 수업이야말로 실로 살아있는 도덕교육이 되기 위한 기존의 도덕교육의 한 대안으로 보아 교실붕괴 현상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오늘날 학교 교육의 새로운 도덕교과 수업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다.

도덕과 수업을 하면서 종종 느끼게 되는 것 중의 하나가 학생들이 수업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고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살아있는 수업을 할 수 없을까 하는 것이다. 교과서 위주의 틀에 박힌 내용의 설명이나 임시 위주의 틀에 박힌 수업이 아니라 실생활에 유용한 지식을 스스로 찾아가고 배우는 과정을 만들어 주는 수업을 생각하면서 탐구 공동체 수업을 도덕 시간에 적용해보기로 했다. 처음 탐구공동체 수업을 생각했을 때 탐구공동체 수업 모형에 대한 지식의 부족, 진행 과정에서의 학생들의 참여도, 대학 입시에 민감한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과제수행에 따른 시간 활용 문제, 역할분담에 대한 부담 등 여러 가지 환경 요인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하나하나 진행해나가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느낀 것은 정말 알찬 준비만 있으면 어떤 수업보다 진지하고 실용적이며 다양한 지식 습득, 사고능력, 판단능력, 비판능력, 협동심, 배려심 등을 길러주는 좋은 수업의 장이 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탐구공동체 활동은 공동체(조별)를 구성하는 것에서부터 교과목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고, 학생들이 공동체를 구성하여 탐구하고

3) 김종순(1999), “학습자의 인지양식에 따른 딜레마 토론 수업의 효과”,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p.1.

싶은 주제를 스스로 선택하여 그 주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통합하여 탐구지 및 탐구 질문지를 만들면서 탐구한 내용을 정리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는 창의적인 학습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또한 탐구공동체 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수업은 남과 더불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가장 직접적으로 실현되는 사고와 활동이다. 논의에 참가한 사람들이 논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견을 주장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논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집단 화법의 한 유형이다.⁴⁾ 즉, 토론이란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를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 사고 활동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⁵⁾ 인간은 각자 다른 생각, 견해, 믿음, 가치를 갖고 있으며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타인들과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해 가고 있다. 이런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 토론은 중요한 조정기능을 한다. 또한 토론은 한 문화의 지적, 정치적, 사회적 쟁점에 대한 사회화 과정이기도하다.⁶⁾ 즉, 토론을 통해 문제의 원인과 배경, 그리고 다양한 해결책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속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게 되고 공동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 현대와 같은 전파·전자 매체의 시대에도 토론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매체를 통한 토론을 중심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여론을 형성하고 사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한 공동체 안에서의 쟁점은 물론 인권이나 환경, 교육과 같은 전지구적 쟁점들을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탐구공동체 활동에서의 토론수업은 탐구공동체 활동이 이루고자 하는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수단인 것이다.

탐구공동체 활동의 목표인 ‘합리적인 탐구와 합리성의 개발, 도덕판단력 향상, 공동체에 대한 배려의 정신 함양’ 등과 도덕교과에서 추구하는 학습목표인 ‘인간존중의 삶의 자세 확립,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도덕적 문제를 바람직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향상’⁷⁾ 등을 이루기 위해서 탐구공동체 활동에서의 토

4) 이증구(2003), 「고등학교 화법」, 세기문화사, p.194.

5) 김복실(2003), “효율적인 말하기 능력 신장을 위한 토론학습 지도 방안”,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교육대학원, p.1.

6) 강태완 외(2003), 「토론의 방법」, 커뮤니케이션북스, p.15.

7) 1종도서편찬위원회(2002), 「고등학교 도덕 교사용지도서」, 교육인적자원부, p.19.

론수업이 바람직한 고등학교 [도덕]수업 모형이라 생각한다.

이 연구는 이런 관점에서 탐구공동체 모형의 이론적, 실천적 입장을 고등학교 [도덕]수업에 적용함으로써 그것이 갖는 의의를 실제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의 주된 관심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교육에 있어서 탐구공동체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그것의 의의와 특성 및 도덕 교육적 의의를 고찰한다.

둘째, 고등학교 [도덕]수업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탐구공동체 운영의 목표, 원리, 기법 등을 고찰한다.

셋째, 탐구공동체를 운영해보고 운영과정과 결과를 고찰하고 평가함으로써 구체적 고등학교 [도덕]수업의 방법으로써 탐구공동체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한계

본 연구는 제 7차 교육과정에서 도덕과가 추구하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의 하나로 탐구공동체 모형을 고등학교 [도덕] 교수-학습에 적용하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첫째, 올바른 도덕교육의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서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 내용의 선정·조직, 고등학교 [도덕]교과에 대한 이해를 모색하며 이를 위하여 참고도서, 정기 간행물 등을 참고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다.

둘째, 탐구공동체 모형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론적 배경, 목표, 특징, 기본 요소, 운영 원리, 활용 방안 등을 모색하며 이를 위하여 참고 도서, 선행 연구물, 정기 간행물 등을 참고로 그 내용을 살펴본다.

셋째,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도덕과 수업목표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안으로써 탐구공동체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 모형 중에서 고등학교 [도덕]과 수업에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탐구지 및 탐구 질문지를 활용한 탐구공동체 교수-학습의 기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넷째, 이러한 맥락에서 고등학교 [도덕]에서 특정 소재를 선정하여 탐구공동체 수업을 실제 적용해 보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 있어서 탐구공동체 모형을 실제 수업에 적용한 대상이 한 학년도인 점과 실제 수업 횟수가 적어 그 결과에 대한 보편성과 객관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Ⅱ. 고등학교 [도덕]교과의 특성과 탐구공동체 모형

1.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도덕]

1) 제 7차 도덕과 교육과정의 특징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르면⁸⁾, 초·중·고등학교 도덕 교과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을 이해하고, 일상 생활에 필요한 규범과 예절을 익히며, 국가·민족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세계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파악하게 하여 한국인, 나아가 세계 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교과”라고 하였다.

그리고 도덕과에서의 ‘도덕’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키고 실천해야 할 보편적이며 이상적인 가치들과,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한 생활의 기준이 되는 도덕 규범과 가치들을 내면화시켜 올바른 행동 습관을 기르는 동시에, 다양한 도덕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덕적 사고력과 가치 판단 능력을 길러 주는데 역점을 둔다.”라고 하였다. 그 밖에도 ‘도덕’은 “새 교육 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으로 가장 강조되고 있는 인성 교육과 민주 시민 교육,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시되고 있는 통일 대비 교육과 국가 안보 교육을 핵심 영역으로 다루고 있는 교과”라고 하였다.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의 특징을 제6차 도덕과 교육과정의 특징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⁹⁾

첫째, 도덕과 교육 과정의 체계를 보면 제6차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교과목별 구성으로 고등학교 [윤리]로 편성되어 있으나 제7차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교

8) 1중도서편찬위원회(2002), 「고등학교 도덕 교사용지도서」, 교육인적자원부, p.8.

9) 교육부(2000),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도덕」, pp.102-104.

육과정(3-10학년) [도덕]과 고등학교 [시민윤리]와 심화 선택 과목 [윤리와 사상], [전통 윤리]로 편성되어 있다.

둘째, 도덕과 교육 과정의 성격을 보면 제6차 교육과정은 한국인으로서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교과, 정의적인 영역 강조, 전인적 인격 형성 추구, 학제적 접근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제7차 교육과정은 한국인, 나아가 세계 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교과, 인성교육, 민주 시민 교육, 통일 대비 교육과 국가 안보 교육의 강조, 학제적 접근 시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셋째, 도덕과 교육과정의 목표를 보면 제6차 교육과정은 윤리에 대한 단일 목표 제시, 학년별 계열성을 고려하여 목표 설정, 지행합일 지향의 특징을 갖고 있으나 제7차 교육과정은 4개 과목별 목표 제시, 일반 목표와 생활 영역별 목표 제시, 목표를 학습자 위주로 진술, 인정·정의·행동적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 중시의 특징을 갖고 있다.

넷째, 교수·학습 방법에서의 특징을 보면 제6차 교육과정은 [윤리]과에 대한 단일 ‘방법’ 제시, 교사의 영향력 강조, 외적인 요인과의 관계의 중요성 강조, 정의적 영역의 형성이나 변화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특징을 갖고 있으나 제7차 교육과정은 [도덕], [시민윤리], [윤리와 사상], [전통 윤리] 별로 각각 과목 특징을 나타내는 교수·학습 방법 제시, 통합적 교수·학습 방법의 중요성 강조, 타 교과 및 교과 외 활동, 가정교육 등과의 연계 노력 강조, 학생들의 지적·도덕적 발달 수준에 부합하는 지도 방법을 학년별로 고려,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 강조, 다양한 학습 자료의 개발과 교사 상호간의 공유 강조의 특징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의 총체적 특징을 보면, 제6차 교육과정은 단일 교과서 사용, 교육 수요자의 관심과 학업 능력에 대한 배려 부족의 특징을 갖고 있으나 제7차 교육과정은 4개 과목별로 과목의 특징을 나타내는 ‘평가’ 제시, 수준별 교육과정 이념의 도입 시도,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도덕]과 일반선택, 심화선택 과목으로 단일 수준 교육 과정을 다차원 교육 과정으로 변화 모색, 교육 수요자인 학생의 선택권 인정에 대비하는 교육 과정 및 교과서 개발, 선택형 교과의 교육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각 교과목별 특성 부각의 특징을 갖고 있다.

2) 고등학교 [도덕]교과의 특성

(1) 의의와 목적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고등학교 [도덕]과의 의의와 목적을 보면, 『‘도덕’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을 이해하고, 일상 생활에 필요한 규범과 예절을 익히며 국가·민족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세계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파악하게 하여 한국인, 나아가 세계 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교과이다.』와 『‘도덕’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키고 실천해야 할 보편적이며 이상적인 가치들과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한 생활의 기준이 되는 도덕 규범과 가치들을 내면화시켜 올바른 행동 습관을 기르는 동시에, 다양한 도덕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덕적 사고력과 가치판단 능력을 길러 주는 데 역점을 둔다.』라고 밝히고 있다.¹⁰⁾

첫째 번으로 지적한 도덕과의 의의와 목적은, 도덕과의 의의와 목적이 바로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 확립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반도에서 태어났고 한반도에 살게 된 하나의 개인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국가·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본분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가치관과 신념 등을 가르치는 데 의의와 목적을 두고 있다는 뜻이다.

둘째 번으로 지적한 도덕과의 의의와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알고 느낄 뿐만 아니라 행동 실천을 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당면하는 문제를 도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고 능력 신장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다음으로, 도덕적 사고력과 도덕적 판단 능력의 신장도 강조되었는데, 그것은 일상 생활에서 부딪치는 도덕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또 바람직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뜻하며, 이러한 능력은 도덕적 갈등 사태의 해결에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우리들이 직면하는 문제에는 **선·악**의 구별이 분명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선과 선 사이에서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악과 악 사이에서의 갈등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도덕적

10) 교육부(2000), 전게서, p.20.

판단 능력이다.

(2) 목표

현행 제 7차 교육 과정에 따르면, 도덕과의 목표는 “한국인으로서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과 예절 및 도덕 규범을 익히고, 일상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도덕적 문제를 바람직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기르며, 올바른 시민 의식과 국가·민족 의식, 그리고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의식을 함양하고, 삶의 이상과 원리를 체계화하며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성향을 기른다.”고 되어 있다.¹¹⁾

위와 같이 도덕과의 일반적 목표를 위한 ‘지식·사고 능력·태도 및 의지’의 삼분법적 목표 설정은 도덕과 교육이 지향하는 근본적인 방향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다. 즉, 이제까지 학교 도덕 교육은 지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난받았고, 특히 지식 위주의 교육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 목표를 설정하게 된 것이다.¹²⁾

우리가 도덕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행동이 선하고 악하며, 또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른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순간적으로나 또는 습관적으로 어떤 올바른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다시 그러한 사태에 직면했을 때에도 그와 같이 바람직한 행동을 일관성 있게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비록 자기가 어떤 행동이 옳고 그름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생활 속에서 그것을 반드시 실천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안다는 것은 도덕적 행동을 위한 필요조건은 될 수 있지만,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바람직한 도덕적 실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도덕적 문제를 바람직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하며 판단할 수 있는 ‘사고 능력’과 생각한 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의지와 행동 습관’이라고 하겠다.

11) 1종 도서 편찬 위원회(2002), 전계서, p.19.

12) 교육부(2000), 전계서, p.25.

그런데 판단 능력이나 실천 의지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처럼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의 학습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설정된 도덕과의 목표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한국인으로서의 바람직한 국가·민족적 정체성을 확립케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행동요소 중심으로 목표를 설정한 것이고, 학생들의 도덕적 발달 상황을 고려하여 학년에 맞는 도덕과의 목표를 설정한 것이며, 그리고 도덕 교육 이론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에서 지향하는 교육적 성과를 모두 거두기 위한 시도로서 도덕과의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¹³⁾

(3) 내용

제 7차 교육 과정에서의 고등학교 [도덕]과의 내용은, 도덕과의 의의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목표를 설정한 다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정, 조직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목적→목표→내용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한국인으로서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과 예절 및 도덕 규범을 익히고, 일상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도덕적 문제를 바람직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기르며, 올바른 시민 의식과 국가·민족 의식, 그리고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의식을 함양하고, 삶의 이상과 원리를 체계화하며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성향을 기른다”¹⁴⁾라는 도덕과의 교육 목표를 깊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도덕]과의 생활 영역별 내용 세목은 『사회생활 - 공동체 의식 문제와 환경 문제, 청소년 문제와 청소년 문화, 도덕 공동체의 구현과 공동성의 추구』와 『국가·민족생활 - 민족분단의 원인과 과정,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통일의 과제, 민족 공동체의 번영과 통일 한국의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 세목은 교육 과정상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의 내용이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의 제일 끝학년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도덕과의 연계선상에서 고려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고등학교 1학년은 종래의

13) 임용경(2001), “도덕과 목표 설정의 기본 이론과 준거”, 「도덕과 교육론」, 교육과학사, pp.106-107.

14) 1중 도서 편찬 위원회(2002), 전개서, p.19.

교육 과정에서는 ‘국민윤리’ 또는 ‘윤리’교과라는 별도의 교육 과정에 의하여 운영되었고, 또 학생들의 도덕적 추리의 단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 체제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사회의 가치 체계에 대하여 본격적 관심을 기울이는 연령에 해당되는 만큼 한 차원 높은 내용의 선정, 조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사회 생활 내용은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대두되는 도덕 문제와 함께 우리의 계급 갈등이나 지역 감정 등으로 훼손 받는 공동체 의식, 그리고 산업화 과정에서 심각하게 노정되는 환경 문제와 그 해결 방안 등을 다룬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여건 속에서 특히 상급 학교 진학 위주로 운영되어 인성 교육이 실종되고 있는 학교 풍토와 상업 위주로 운영되는 대중 매체의 악영향 하에서 청소년의 정체성 혼란과 그것에서 파생되는 청소년 문제들을 다룬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의 극복 방안으로 제안되고 있는 건전한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 문화의 탐색 방향이 제시된다. 동시에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공동선 및 사회 정의, 그리고 도덕 공동체의 구현 방안도 중시되고 있는 내용이다.

국가·민족생활 내용은 남북한간의 민족 분단의 원인과 과정을 밝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통일 환경과 함께 남북한이 지금까지 추구해 온 통일 정책을 비교하고, 남북한이 앞으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과제들을 제시한다. 그리고 남북한이 앞으로 구현하여야 할 통일 한국의 바람직한 모습을 그려보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바람직한 한국인상을 설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민족생활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국가·민족의 장래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 학생들에게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게 하고, 동시에 통일 한국과 그의 세계적 위상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가지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¹⁵⁾

(4) 교수-학습 방법

제 7차 교육 과정에서의 고등학교 [도덕]과의 교수-학습 방법은 일반적인 원칙

15) 교육부(2000), 전게서, pp.29-30.

및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구체적인 방법 및 기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양분된다.

먼저,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을 구사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일반적인 원칙 및 방향은 첫째, 도덕과 수업에서는 도덕적 지식이나 판단력과 같은 인지적 영역과 함께 도덕적 가치와 태도, 행동 성향과 같은 정의적인 영역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노력한다. 특히, 도덕 규범이나 예절에 대한 교육은 학생들이 지적 인식에 머무르지 않고,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교사가 확고한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도한다. 둘째, 도덕 판단력과 가치 선택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주제별 탐구식 토의 기법이 적절하다. 그러므로 학생들로 하여금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여러 도덕 문제들을 교과서의 내용과 관련지어 자기 주도적으로 탐구함으로써 도덕적 사고 능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한다. 셋째, 도덕 원리를 체계화하고 자율적인 실천 성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당면하는 문제 사태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능력과 실천 의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학생들이 기본 생활 습관과 예절 및 도덕 규범의 실천을 스스로 다짐하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급적 많이 제공한다. 넷째, 교사들은 학생들의 동일시의 대상임을 고려하여, 일상적인 언어·사고 방식·태도·행동 등에 유의하여 도덕적 모범이 되도록 한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방법과 기법¹⁶⁾ 등을 보면 첫째, 지적·도덕적 발달 수준에 부합되는 지도 방법을 학년별로 고려하고, 같은 학년에서도 목표와 내용에 따라 특색 있는 지도 방법을 구사한다. 따라서 감화 및 설득 방법, 탐구식 지도 방법, 실천·체험 중심의 지도 방법 등 다양한 방법과 기법들이 활용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의 특성이나 시사성이 강한 내용은 그 지역이나 시기에 알맞게 재구성하여 지도하도록 한다. 동시에 학생들의 가치 탐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교사 상호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학생들의 건전한 도덕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도덕과 수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가정 교육이나 타 교과에서 다루어지는 가치 문제, 교내 행사,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 작용을 도덕과 수업에 적절히 관련시

16) 교육부(2000), 전계서, pp.32-33.

김으로써 학생들이 도덕 규범을 내면화하고, 도덕적 실천 성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5) 평가

제 7차 교육 과정에서의 고등학교 도덕과 평가의 일반적인 방향이나 평가 기준¹⁷⁾은 “도덕과의 평가는 도덕성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측면에 대한 통합적 평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도덕과의 평가에서는 도덕적 가치·규범에 대한 이해,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 도덕적 신념과 태도, 실천 의지와 행동 성향 등을 포함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는 ‘도덕과의 인지적 영역의 평가에서는 대체로 도덕적 가치·규범의 의미, 근거에 대한 이해 정도, 도덕적 사고력과 추론 능력 정도, 가치 판단의 합리성 정도 등을, 정의적 영역의 평가에서는 도덕적 민감성과 열정성, 도덕적 가치·규범에 대한 내면화 정도 등을, 그리고 행동적 영역의 평가에서는 도덕적 가치·규범을 실천하고 습관화한 정도를 평가의 준거로 할 수 있다.’¹⁸⁾고 하였다.

첫째 번으로 지적된 것은 도덕과 평가에서 항상 제일 먼저 문제가 되고 있는 왜 평가를 하며,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번으로 지적된 것은 도덕과 평가에서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을 평가하기 위한 좀더 상세화된 평가 준거를 제시한 것이다.

다음으로, 도덕과 평가의 구체적 방법과 평가 결과 활용법¹⁸⁾에는 “도덕과의 평가는 도덕성의 세 측면에 대한 통합적 평가를 추구하고, 학생들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평가의 방법에 있어서도 가급적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필 평가, 행동 관찰, 자기 보고법, 면담법, 구술 평가, 포트폴리오, 토론과정 및 발표에 대한 관찰 평가, 학생 상호 평가 등 다양한 평가 방법과 기법을 적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¹⁹⁾고 하였다. 또한 “평가 결과는 기록, 보고, 보관하는 데 그치지 말고, 궁극

17) 1종 도서 편찬 위원회(2002), 전게서, pp.35-36.

18) 교육부(2000), 전게서, p.36.

19) 서강식(2001), “도덕과의 통합적 평가 방안”, 「도덕과 교육론」, 교육과학사, p.316.

적으로는 학생들의 지속적인 도덕적 성장을 촉진하고, 도덕과 수업의 목표, 내용, 방법 등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 자료와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한다”고 하였다

첫째 번으로 지적된 것은 도덕과 평가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방법상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 번으로 지적된 것은 형성 평가의 기본 원리를 도덕과에 적용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동시에 수행 평가의 시행과정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2. 고등학교 [도덕]과의 특성에 맞는 교수-학습방법

환자의 병에 따라 의사의 처방이 다르듯이, 도덕과 수업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지적, 도덕적 발달 수준에 부합되는 지도 방법을 학년별로 고려하고, 같은 학년에서도 목표와 내용에 따라 특색 있는 지도 방법을 구사해야 한다.²⁰⁾

첫째, 통합적인 지도가 있어야 한다. 도덕과 교육이 의도하는 바는 학생들이 도덕적 지식, 판단력뿐만 아니라, 도덕적 정서와 행동 경향성을 고루 잘 발달시켜 통합적인 도덕적 인격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도덕적 지식이나 판단력과 같은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도덕적 정서, 도덕적 행동, 도덕적 관례와 같은 상식적인 도덕성이 도덕 교육에서 중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이에 도덕과 수업에서는 해당 지도 요소와 관련된 도덕성의 통합적인 측면들을 다양하고 풍부한 교수-학습 활동을 통하여 지도하도록 한다.

둘째, 탐구식 토론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도덕적 판단력과 가치선택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주제별 탐구식 토론기법이 적절하다. 그러므로 학생들로 하여금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여러 도덕적 문제들을 교과서의 내용과 관련지어 자기 주도적으로 탐구함으로써 도덕적 사고 능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한다. 도덕과에서 탐구식 토론 기법 활용을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우선,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활발한 토론이나 탐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제’의 선정이다. 학생들이 느끼기에 중요하고 흥미 있는 주제가 아니라면 교사

20)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2002), 「제7차 교육과정의 이해 및 적용」, pp.11-12.

가 자발적이고 활발한 토론을 불러일으키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적절한 도덕적 토론의 과정을 안내하는 수업 모형의 활용이다. 도덕과 수업에서는 일반적인 수업 모형뿐만 아니라, 역할놀이 수업모형, 개념분석 수업모형, 가치갈등 수업모형, 집단 탐구 수업모형, 가치 명료화 수업모형, 콜버그 수업모형 등과 같은 다양한 수업 모형을 활용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도덕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기본적인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²¹⁾

1) 일반 수업 모형

교사용 지도서가 대부분 이 체제를 따르고 있으며, 통합적 접근을 위한 토대가 되고 있다. 일반 수업 모형의 흐름은 도덕적 문제 사태 제시→문제 사태와 관련된 규범 찾기→규범의 의미와 타당성 찾기→도덕적 판단의 연습→실천 동기 부여의 다섯 단계로 이루어진다.



2) 역할놀이 수업 모형

역할놀이(role playing)는 어떤 가상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문제시되는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방법으로서, 정서적 역할놀이라고도 한다. 놀이 전개는 역할놀이 준비→참가자 선정→역할놀이의 바탕 조성→청중의 준비→역할놀이의 시연→논의와 평가→재 시연→경험의 공유와 일반화라는 8단계를 거친다.

3) 토론 수업 모형

콜버그의 인지 발달론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찬반

21) 교육인적자원부(2003), 「고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운영 자료」, pp.5-7.

토론법을 많이 적용하고 있다. 보통 다음 네 단계 즉, 도덕적 문제 사태 제시→도덕적 토론의 도입→도덕적 토론의 심화→실천 동기의 부여라는 절차를 밟는다.

4) 가치 명료화 수업 모형

가치 명료화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택한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 가치와 행동 사이에 일관성이 있도록 도와주는 가치 수업의 한 방법이다. 수업 단계는 다음 네 단계로 전개된다. 즉, 도덕적 문제 사태 제시→선택하기(자유선택, 여러 대안들로부터 선택, 대안들의 결과를 생각하여 선택)→존중하기→실천동기의 부여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5) 가치 갈등 수업 모형

우리가 도덕 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범들을 각각 별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련되어 있어 규범의 체제가 몹시 복잡하다. 그 결과 이를 명백하게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치의 우열이 쉽게 분별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상 생활 장면에서 여러 개의 규범을 고려하여 판단 및 의사결정을 내릴 경우 갈등을 경험한다. 일반적인 학습 과정 및 절차는 가치 갈등 사태 제시→관련된 규범의 확인→관련 규범의 의미 명료화→문제 사태의 성격 분석→양립된 입장의 결과 예상→자기 입장의 선택 및 정당화→자기 입장의 수정 및 대안 탐색→학습 내용의 정리의 8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6) 가치 분석 수업 모형

가치 분석은 가치를 연역적 추론에 의한 과학적, 논리적 사고로써 학습하도록 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가치를 탐색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와 같

은 분석 과정을 도와주자는 데 목표가 있다. 보통 7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가치문제의 제시→관련된 가치의 확인→가치 갈등의 명료화→대안의 검토→대안의 결과 예상→대안의 결정→실천 동기 부여 순으로 학습한다.

7) 개념 분석 수업 모형

인간의 사고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활동 중에서 사고와 관련된 활동의 대부분은 개념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그래서 개념을 학습하는 것은 사실에 관한 지식의 획득이라는 일차원적 학습을 넘어서 추론, 판단, 의사결정 능력 등을 포함하는 고등 정신 기능의 함양을 위한 고차원적 학습의 전제 조건이다. 보통 다음의 8단계를 거친다. 도덕적 문제 사태 제시→분석될 개념의 식별→개념의 전형적 사례 확인→개념의 반대 및 경계 사례 확인→관련 개념 혹은 사태들의 파악→가상 사태의 상상을 통한 검토→분석 결과의 검토 및 정리→실천 동기의 부여 순으로 학습한다.



8) 집단 탐구 수업 모형

학생들을 소집단으로 구성하여 탐구 과제를 제시하여 이를 조사, 토의 등을 거쳐 도덕적 성과를 얻게 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 절차는 다음 7단계를 거친다. 문제 상황의 제시→탐구문제의 확인→탐구 문제의 세분화→탐구 계획의 수립→탐구의 실시→탐구 결과의 발표→탐구에 대한 평가 순으로 학습한다.

위에 제시된 여러 가지 수업모형 중에서 가치분석 수업모형과 같은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는 수업모형은 도덕적 영역이 주로 상이한 개인들의 주장, 권리, 이해 관계에서의 갈등들을 공평하고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식과 절차에 국한되고 있다보니 도덕성을 지나치게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만 환원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동

시에 일상적인 사회적 상호 작용들이 지니고 있는 도덕적 차원을 간과하고 있으며, 배려·애정·감정이입·동정심 등의 도덕적 정서, 즉 도덕 생활에 있어서 도덕성의 비합리적 측면들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을 무시하는 문제점²²⁾을 지니고 있어 오늘날 도덕 교육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업모형으로써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치 명료화 수업 모형과 같은 정의적 측면을 강조하는 수업모형은 도덕적 가치와 행동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문제점 즉, 학생들이 자신의 가치에 일관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느낄지도 모르나 특정한 가치에 대한 확신에 의해 수반된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도덕적 정당화와 단순한 합리화를 구별하지 못하여 ‘원하는 것’과 ‘해야만 하는 것’ 사이의 구분을 하지 않음으로써 도덕적 상대주의를 조장할 수 있는 문제점²³⁾을 갖고 있어 오늘날 도덕 교육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업모형으로써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학교 현장에서는 위와 같은 8개의 모형을 토대로 하여 다양한 기법들이 응용되고 있다. 그 예로 골든벨 수업, 퍼즐식 수업, 퀴즈 수업, 각종 게임 수업, 동영상자료수업, 신문활용수업, 탐구조사활동수업, ICT 활용 수업 등이 있다.²⁴⁾

최근에 와서는 도덕교육이 추구하는 목표달성과 더불어 현대사회에 나타난 개인주의의 이기주의화로 인한 공동체 의식의 부재를 해소하기 위한 수업으로써 탐구공동체 수업 모형이 등장하고 있다. 탐구공동체 수업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은 공동체의 규칙과 탐구절차에 따라 주어진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만이 옳다고 고집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도 옳을 수 있다는 열린 마음과 관용의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정신으로부터 공동체에 대한 배려와 타협적인 정신이 나올 수 있기에²⁵⁾ 현대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공동체 의식의 부재를 해소하기 위한 수업방법으로써 탐구공동체 수업 모형이 적절하다고 생각된

22) 추병완(1999), 「도덕 교육의 이해」, 백의, p.139.

23) 박병기·추병완(1996), 「윤리학과 도덕교육」, 인간사랑, p.135.

24) 교육인적자원부(2003), 전개서, p.7.

25) 조성민(2003), “민주시민의 자질 개발을 위한 탐구공동체 운영방법”, 「사회과학연구 제 4집」, 사회과학연구소, p.8.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탐구공동체 모형을 활용한 토론수업을 고등학교 [도덕] 수업에 적용한 교수-학습 방안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3. 탐구공동체 모형 활용의 의의

도덕수업의 더 큰 성과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익히 아는 사실이다. 적합한 교재, 교재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수업내용을 조직하고 이끌어가는 교사의 능력, 수업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효한 수업방법과 교수기법, 긍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태도 등 여러 요소가 조화를 이루었을 때 도덕수업의 성과는 더욱 더 커지게 된다.

이러한 요소가 모두 중요하겠지만 도덕수업의 정의적인 특성상 수업을 함께 하는 학생들간의 그리고 교사와의 일체감이 성과에 가장 크게 작용을 한다. 교사가 교재의 내용을 적절한 수업방법을 활용해서 수업을 해나간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심정적으로 공감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동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도덕수업은 교실을 공동체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학교는 인위적인 공동체로 구성원의 외래적인 목적과 규칙에 의해 묶여진 곳이다. 그래서 구성원들 간의 공유된 경험, 자발적 의사소통, 공유된 의미의 이해가 부족한 채로 내면적 소통 없이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때문에 도덕수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²⁶⁾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동체는 형식적으로만 개인들이 모여 이루어진 학습공동체와는 달리 내면적으로 느낌을 공유한 탐구공동체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탐구공동체는 구성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협력적인 학습에 참여할 때 이루어지는 유기적인 조직체를 말한다. 이렇게 할 때 각 구성원은 지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각과 경험을 얻게되고 각자는 전체 공동체의 역할에서

26) 김대균(2004), “도덕탐구공동체 수업에서 이야기의 활용에 관한 연구”, 「윤리교육연구 제5집」, 한국윤리교육학회, p.89.

존재의 의미를 느끼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덕교육을 하고자 하는 교실은 탐구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탐구공동체의 개념은 미국에서 아동철학운동을 주도한 리프먼(M. Lipman)과 동료들이 탐구공동체를 아동 철학교육의 기반으로 삼으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아동철학운동가들의 탐구공동체 개념은 듀이와 피어스 등의 실용주의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탐구공동체’라는 말은 피어스(C. S. Peirce)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⁷⁾ 피어스는 과학자 집단이 논거의 정당성, 강력한 증거 등을 준거로 해서 비판과 토론을 통해 과학의 발전을 가져온 점에 착안하여 탐구공동체라고 불렀던 것이다. 리프먼은 이를 교육에 적용하여 철학교육 프로그램의 사고력교육에 활용하였다. 철학적으로 사고하려면 교실을 탐구공동체로 바꿔야한다는 것이다. 탐구절차에 있어서 공동체는 증거와 근거를 대는데 있어서 열려 있어야 한다고 본다. 공동체의 이런 측면들이 내면화될 때 학생들 각자는 반성적 습관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바로 도덕교육의 목적과 일맥상통한다 하겠다. 내면화되지 않을 경우 가르쳐지는 가치들이 신념화되지 않고 행동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도덕교육에서 가르쳐져야 하는 것 중의 하나는 모든 도덕적 행위들은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에겐 불확실한 세계에서 직면하게 되는 도덕적 갈등을 다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 탐구공동체가 바로 도덕적 판단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에서 탐구공동체는 도덕수업의 필요조건으로 간주될만하다 하겠다.²⁸⁾

탐구공동체 구성원들은 공동체의 규칙과 탐구절차에 따라 공동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한다. 그런 점에서 탐구공동체 활동은 자율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 탐구공동체에서 제시되는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하여 서로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잘못된 것은 버리고 옳은 것은 수용하는 합리적인 사고와 태도를 보인다.

27) 조성민(2003), 「인성과 창의성 개발을 위한 NIE 탐구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교육과학사, p.14.

28) 김대군(2004), 전계서, p.90.

탐구공동체 구성원들은 또한 공동의 토론을 통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서로 협력한다. 자신의 생각과 의견만이 옳다고 고집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도 옳을 수 있다는 열린 마음과 관용의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정신으로부터 공동체에 대한 배려와 타협적인 정신이 나올 수 있다.²⁹⁾

탐구공동체의 중요한 요소인 타인존중은 합리적인 탐구가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토론이나 또는 공동으로 탐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합리적인 탐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탐구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윤리적인 탐구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다.³⁰⁾

따라서 탐구공동체는 도덕교과가 추구하는 목표인 ‘현대사회에 발생하는 도덕 문제를 합리적이고도 바람직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신장’³¹⁾에도 특히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이라 생각한다.



29) 조성민(2003), “민주시민의 자질 개발을 위한 탐구공동체 운영방법”, 「사회과학연구 제 4집」, 사회과학연구소, p.8.

30) 조성민(2003), 전게서, pp.16-17.

31) 교육인적자원부(2002), 전게서, p.19.

Ⅲ. 탐구공동체 교수-학습 모형의 이론적 특성

1. 탐구공동체 모형의 이론적 배경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방향은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이다. 이점에서도 리프먼(M. Lipman)의 탐구공동체 모형은 현 교육과정에서 의미 있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능력을 핵심으로 사용하고 있는 탐구공동체 모형은 도덕과 수업모형으로서도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탐구공동체’의 개념은 1970년대 들어 미국에서 아동철학운동을 주도하던 아동철학교육 운동가인 리프먼이 철학교육의 방법론으로 활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리프먼을 비롯한 아동철학교육 운동가들은 ‘교실이 탐구공동체로 바뀌어야 한다’는 듀이(Dewey)의 주장과 ‘사회적 행위가 의식의 전제조건’이라는 사회심리학자 미드(G.H.Mead)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탐구공동체를 아동철학교육의 기초로 삼는다.

이러한 리프먼의 탐구공동체 모형은 듀이의 탐구이론과 미드의 상호작용이론을 그 이론적 배경³²⁾으로 삼고 있다.

1) 듀이의 탐구이론

듀이는 학생들에게 민주 시민의 자질을 길러주기 위해서 교실은 탐구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듀이에 의하면 거대 사회가 완전히 민주적인 사회가 되려면 거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에 의하면 미국의 민주주의는 전통적으로 지역 공동체의 테두리 안에서 발전해왔다. 그러나 지역공동체가 쇠퇴하면서 민주주

32) 지영선(2002), “탐구공동체 수업모형 연구와 활용방안”, 「윤리교육연구 2집」, 한국윤리교육학회, p.53.

의의 실천도 쇠퇴하게 됨을 그는 목적하였다. 그런데 듀이에 의하면 공동체는 민주주의 실천의 기초이다. 그는 국가 수준에서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여론은 잘 표현되기만 하면 국가 단위의 민주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다고 그는 믿었다. 그리하여 거대사회를 거대공동체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자유로운 사회적 탐구와 모든 시민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에서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의 자질을 심어 주기 위해서는 학교 자체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듀이는 주장하였다. 이것은 학교의 조직과 개별 교실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참여적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학생들에게 길러주기 위해서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듀이는 교실을 탐구공동체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것은 탐구하는 공동체이어야 하며, 상호 작용하고 협력하는 공동체이어야 한다. 한마디로 듀이에게 있어서 교실은 거대 공동체의 축소판이다.³³⁾

탐구공동체 방법의 모델은 퍼어스(Peirce)가 제시한 ‘과학자 집단’ 탐구방법에서부터 출발한다. 과학적 방법의 핵심은 ‘개념의 의미를 명료화하는 방법’이다. 의심에서 시작해 해로운 신념에 안착하기까지 인간의 사유가 감행하는 안간힘과 모험이 바로 퍼어스가 보는 탐구이다.

듀이는 퍼어스가 제안한 논리적이고 과학 철학적 성격의 실용주의와 제임스가 확대 해석한 실천적이고 도덕 철학적 함축을 강하게 지닌 실용주의를 창조적으로 결합시킨다. 모든 종류의 인식적 산물은 인간 유기체가 환경과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 세계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구성된 것이다. 역으로 인간의 가치들도 과학적 탐구처럼 엄격한 탐구과정을 통해 항상 반성하고 재음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치들도 상당부분은 도구적 가치들이기 때문이다.

도구주의는 인간의 사유가 문제 상황들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관해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임스는 우리들의 관념, 개념, 이론, 신념 등은 모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도구들이며, 따라서 그 기능과 가치들은 우리들의 미지의 삶, 미래의 경험에 얼마나 잘 인도해주는가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듀이는

33) 조성민(2003), 전계서, pp.14-15.

제임스의 이런 견해를 이어받아서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제시하고자 시도했다.

듀이는 탐구를 “처음의 불안정한 상황을 형성하던 요소들을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 바꿔 상황을 구성하는 특성들과 관계들이 잘 안정된 상황으로 변환시켜가고 잘 제어되고 정향성을 지닌 시도”로 정의한다.³⁴⁾

듀이의 탐구이론은 ‘심리적 과정’과 ‘논리적 과정’을 “문제해결로서의 탐구과정” 속에 하나로 통합시켜 “논리적 요소가 어떻게 문제해결에서 심리적 습관들을 지도하는 원리로 작용하는가”를 설명한다. 곤혹스런 상황에 처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탐구를 하는 가운데 논리적인 사고의 규범을 익혀나가는 것으로 보았다.

탐구의 절차는 탐구의 선행조건(불확정한 상황)에서 출발하여 문제의 설정, 가설 또는 해결책의 모색, 추론으로 끝을 맺는다고 보았다. 추론을 거치면서 처음에 암시의 수준에 머무르던 관념이 차츰 정교화 되어지고 관념들간의 관계도 체계화, 구조화되어 결국은 어떻게 실험 조작을 예측하고 수행할 수 있는지를 규정해주는 정도까지 구체화된다.

듀이에 따르면 교육이란 경험의 끊임없는 개조이며, 미숙한 경험을 지적인 기술과 습관을 갖춘 경험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시키거나 반대로 학생의 자발성에만 의존하면 불충분하므로 여러 가지 경험에 참여시킴으로써 창조력을 발휘시킬 수 있는 계획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일을 위하여 학교는 현실사회의 모델일 뿐만 아니라 사회 개조의 모체가 될 수 있는 이상사회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미드의 상호작용이론과 역할채택

미드 심리학의 주된 사상은 “부분(개인)이 전체(사회)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부분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화 이론에 반대하면서 “배움을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교육 방법의 민주화를 우선하였다. 그리하여 아동은 취학 전부터 표현의 기회를 기다리는 사회적 충동을 갖추었기에 이

34) Dewey(1938), 「Logic: the Theory of Inquiry」, 지영선(2002), 「윤리교육연구」, 한국윤리교육학회, p.55에서 재인용

사회적 충동이 조직적인 방식으로 표현될 장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만약 상호 존중해 주는 기풍의 순수한 공동체가 그 학급에 형성된다면, 병어리 같던 학생도 그의 껍질에서 나와 대화의 공동체에 참여할 것이다.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기호에는 의미가 있고 또 인간은 생활환경을 구성하는 모든 사물에 주관적으로 의미를 부여한다. 따라서 인간에게서 모든 대상은 주관적으로 해석된 의미, 즉 부여된 뜻을 지니고 있다. 즉 모든 것에 상징성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인간의 행위란 상징(의미)을 매개로 하는 상호작용이다.

미드는 인간의 정신은 유기체와 그의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발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이론 체계에 있어서 두 가지 기본 가정은 첫째, 인간유기체는 생물학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 집단적 맥락에서 서로 협동해야만 하며, 둘째 인간 유기체 내부에서나 유기체들 사이에서 협동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생존 또는 적응을 촉진시키는 행위들은 존속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가정에서 출발한 미드는 정신, 사회적 자아, 그리고 사회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생성되고 지속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설명에 있어서 준거 틀로 작용하는 있는 것이 역할 채택이다. 흔히 역할채택은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 보는 것’ 등과 같이 은유적으로 정의되어지고 있다. 학문적 입장에서 역할채택은 ‘어떤 판단을 내리거나 행동을 계획할 때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보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³⁵⁾ 이러한 역할채택의 본질적 특성은 특히 도덕적 판단을 중히 여기는 도덕 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2. 탐구공동체 모형의 특성과 원리

탐구공동체는 두 개의 기본적인 요소를 지닌다. 즉 탐구의 개념과 공동체의 개념이다. 탐구공동체에서의 ‘탐구’는 사려 깊고 신중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공동체’는 그 안에서 사람들 간의 차이점을 알게 될

35) 지영선(2002), 전계서, p.56.

뿐만 아니라 존중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탐구공동체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협동적인 활동이 조장되며, 그것을 통해 구성원들 간에 깊은 연대감이 형성될 수 있다. 탐구공동체는 단순한 정신(minds)의 만남뿐만 아니라 마음(hearts)의 만남을 포함한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것은 합리성(reasonableness)의 개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성되는 것이지만, 자연공동체의 영혼의 요소를 또한 포함한다.³⁶⁾

이러한 탐구공동체의 목표, 특징, 기본 요소, 운영 원리, 운영 과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다.

1) 탐구공동체의 목표

탐구공동체가 추구하는 목표는 합리적인 탐구이며 합리성의 개발이다. 자연공동체와 달리 탐구공동체는 합리적 탐구라는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공동체이다. 그것은 공동 관심사인 어떤 문제를 놓고 합의된 추론 절차를 통해 협동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이다. 탐구공동체에서 학생들은 어떤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탐구하는 법을 배우고, 일상생활에서 학생들에게 관련되어 있고 그들 개인에게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으로 하여금 삶의 철학적 측면을 인식하고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며 합리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데 그 주요 목적이 있다.³⁷⁾

또한 탐구공동체는 도덕판단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³⁸⁾ 그래서 사고능력을 중시한다. 논리를 중시하는 비판적 사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고의 과정과 합리적 선택의 과정도 중시하며 인간의 이성은 물론 감정의 중요성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리프먼은 사고 기술을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배려적 사고를 동시

36) John C. Thomas, "Community of Inquiry and Differences of the Heart", 「Thinking Vol. 13」, 조성민(2003), 「인성과 창의성 개발을 위한 NIE 탐구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P.16에서 재인용

37) 조성민(2003), 전계서, pp.16-17

38) 지영선(2002), 전계서, pp.63-64.

에 중요시 여긴다. 탐구는 학생들이 흥미로워야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로 하여금 사고하도록 자극하는 최선의 방법은 대화와 토론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또한 훌륭한 사고는 논리적인 추론 능력을 중시해야 한다. 부적절한 추론을 끌어내는 따위의 어설픈 사고 활동 단계의 학생을 보다 훌륭히 사고하는 단계로 개선시키는 것이다. 신빙성 있는 사고 기술은 장래를 보다 효과적인 사고를 하도록 도모하는 것이며, 철학자나 의사결정자의 양성이 아니라, 보다 사색적이고, 합리적이며, 반성적인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다. 반성적 인간은 도덕적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탐구공동체의 목적이기도 하다. 판단은 사고와 행동을 이어주는 고리이다. 훌륭한 판단력의 소유자라면 부적절하고 사려 없는 행동을 하지도 않는다.

사고의 기능은 학생들이 좀 더 잘 들으며, 배우고, 스스로를 잘 표현하게 해준다. 사고 기술은 논리성을 보다 풍부하게 해주고 사고에 있어 의미를 풍부히 해준다.

탐구공동체의 또 다른 목표는 공동체에 대한 배려의 정신을 길러주는 데 있다. 탐구공동체 구성원들은 공동의 토론을 통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서로 협력한다. 자신의 생각과 의견만이 옳다고 고집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도 옳을 수 있다는 열린 마음과 관용의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정신으로부터 타인에 대한 배려와 타협의 정신이 나올 수 있다. 탐구공동체 구성원들은 공동의 문제를 서로 같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인격을 존중하며, 타인에게 공동체의 규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자신도 그 규칙을 준수하는 공정한 태도를 지닌다.³⁹⁾

2) 탐구공동체의 특징

탐구공동체는 근본적으로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들이 함께 공동의 문제나 의미에 대해서 탐구한다는 데에서 협동학습의 성격을 갖는다. 비고츠키⁴⁰⁾는 학

39) 조성민(2003), “민주시민의 자질 개발을 위한 탐구공동체 운영방법”, 「사회과학연구 제4집」, 한국교원대 사회과학연구소, P.8.

40) Vygotsky는 아동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는 사회적 존재임을 강조

습과 발달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과제를 중심으로 한 상호 작용이 인지적 갈등을 일으키고, 그들의 근접발달지대에서 높은 수준의 사고를 보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한편, 사회적 상호 의존성에 의한 학습으로 개인은 그들의 공동목표를 통해 상호 의존적이 되며 개별적 책무성과 집단보상이라는 동기에 의해 학습에 관련된 노력과 동료를 돕는 활동을 좋아하게 된다⁴¹⁾고 봄으로써 협동학습의 효과에 관해 말한 바 있다.

따라서 탐구공동체의 특징 역시 협동학습이 갖는 특징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즉 구성원끼리 서로 도와주어야 만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긍정적 상호 의존성이 있다는 점에서 탐구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준다.⁴²⁾

협동학습에서 대부분의 과제는 사회적인 맥락과 결부되어 있고 동료들과 함께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경험과 자신들의 활동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개인의 사회적 기능을, 집단에게는 보다 효율적인 소집단 활동이 가능하게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생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게 하고 여러 구성원을 경험함으로써 사고의 폭과 경험의 폭을 넓혀 주어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게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똑같은 공부를 하면서도 과제와 관련된 부수적인 이야기 꺼리들도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협동학습은 학생에게 지적 모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가 있고 소집단 속에서 개인의 생각들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상당한 모험을 동반한 창의적 사고를 조장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탐구공동체 역시 이러한 협동학습이 갖고 있는 주요한 특징들을 공유한다. 즉, 상호협력을 통한 사고의 공유, 문제의 공동해결, 그리고 이를 통해 사고의 발달을 꾀

하며 인간 이해에 있어서 사회, 문화, 역사적 측면을 제시하였다. 인간의 정신은 사회학습의 결과이며 일상에서의 문제 해결은 타인과의 대화로부터 영향을 받으므로 상호작용에 필수적 요소인 언어의 습득을 아동 발달에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생각했다.

41) 한순미(2000), 「비고츠키와 교육」, 교육과학사, p.135.

42) 정문성, 김동일(1999), 「열린 교육을 위한 협동학습의 이론과 실제」, 형설출판사, p.24.

함과 동시에 사회적 성장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특징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은 탐구공동체는 철학적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⁴³⁾ 이것은 철학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대화라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다. 탐구공동체에서의 대화는 진리를 지향한다는 점이 그 특징이 된다. 여기서의 협동은 공동체 구성원 각자가 철학적인 각성을 하기 위한 것으로 각 참가자는 그 자체 고유한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다시 말해, 협동학습의 협동이 자칫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서의 협동으로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서로 다른 가치를 지니는 능력의 결합 내지는 보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도될 수 있는 데 비하여, 탐구공동체는 각자가 고유한 탐구자로서의 가능성을 유지한다는 점을 결코 놓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탐구공동체에서의 협동학습은 단순한 의미의 협동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일반적인 협동학습에서는 협력자들의 중요도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더 많은 기여를 하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문제해결의 중심에 선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등 다양한 협력자간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탐구공동체는 그런 관계를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각 탐구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철학적 의미결과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탐구공동체의 탐구자들은 서로에게 중요한 발달의 촉진, 기회 제공, 대화자로서 기여하는 것이다.

3) 탐구공동체의 기본 요소

탐구공동체의 기본 요소는 다섯 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다.⁴⁴⁾

첫째, 탐구공동체는 학습자의 관심으로부터 출발한다. 학습자의 관심사는 추론능

43) 전막선(2003), "도덕교육 방법론으로서 철학적 탐구공동체", 석사학위논문, 진주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 pp.12-13.

44) John C. Thomas(1992), "The Development of Reasoning in Children through of Inquiry", 「Studies in Philosophy for Children」, 조성민(2003), 「인성과 창의성 개발을 위한 NIE 탐구공동체 활용 프로그램」, 교육과학사, p.16에서 재인용.

력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둘째, 토론하고 말하고 귀를 기울인다. 이것은 추론 과정에서의 대화적, 사회적 요소를 의미한다.

셋째,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하고, 다른 사람은 이유를 요구하게 된다. 이유를 제시하고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람이 되는 과정이다.

넷째, 자신과 타인을 존중한다. 이것은 탐구공동체의 윤리적인 차원이며,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위한 기본 요소이다.

다섯째, 스스로 생각한다. 스스로 생각하면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그것을 고집하지 않는다.

4) 탐구공동체 운영 원리

탐구공동체 교수-학습과정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철학적 질문을 토론의 주제로 삼는다⁴⁵⁾. 탐구는 교사와 학생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활동하고 있는 질문 유형이나 질문 방향과 많은 관련이 있는데, 탐구공동체 활동은 철학적 질문을 탐구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철학적 질문은 복합·논리적인 질문으로 상이하거나 갈등적인 관점에서 분석되고 접근될 수 있어서 다양한 대답이 가능한 질문으로 추론의 정확성에 따라 좋은 대답과 좋지 않은 대답이 가능한 질문이다. 또한 단순한 사전적인 지식을 알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개념을 묻는 질문이며,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개념을 묻는 질문이다.

둘째, 문제를 제기하여 대화하고 토론하는 과정으로, 스스로 사고하려는 성향을 기본으로 하는 철학적 주제의 의미를 명료화하고, 개념을 분석하고, 추론과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철학적 탐구에 초점을 둔다. 즉 철학적 토론의 기본적인 방법에는 질문하고 또 질문하기를 통해 구체적인 어떤 것에 대해 알게 되는 것에 도움

45) 이정화(2002), “철학적 탐구공동체 활동이 유아의 언어 및 의사소통 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진주산업대학 경영대학원, p.12.

을 받고 다시 구체적인 문제들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자기가 주장하는 것의 근거를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하기는 오히려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주장과 견해만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

셋째, 탐구공동체 방법을 활용한다⁴⁶⁾. 일정한 결과 산출을 목적으로 구성원은 자신의 신념과 근거,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판단하며 타인의 신념을 알아내며 상호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추론하는 과정이다. 단순한 담화나 논의 그리고 토론이 아닌 문답적인 것으로 논리적 맥락과 탐구 절차를 갖고 단순한 생각·이해·정보 교환이 아닌 조사하며 탐험하고 탐구하는 것으로 협력이 아니라 서로 합작해야 하는 활동이다.

넷째, 다양한 활동들을 통합하여 활용한다. 철학적 대화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사고 발달을 촉진하고 흥미를 유지하기 위해서 토론계획과 연습문제를 질문의 형태로 제시하여 정선되고 방향이 주어진 탐구의 과정에 몰입하게 구성한다. 특히 연습문제는 제시된 문제를 분류, 그리기, 연극 등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 거리, 게임 등 여러 형태로 제시할 수 있다.

다섯째, 탐구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기본적인 덕들인, 상호존중, 민주적 절차, 배려, 관용, 협동 등이 강조되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인지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교실을 탐구공동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구성원 모두의 이성적인 태도와 상호존중 하는 분위기 그리고 학습의 장과 더불어 함께 어울림의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심리적·물리적 환경을 갖추도록 한다.⁴⁷⁾

3. 탐구공동체 모형의 활용 방안

지금까지 학교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탐구공동체 모형을 활용한 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소설을 이용한 탐구공동체 수업이다.⁴⁸⁾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도덕적 문

46) 전막선(2003), 전계서, p.21.

47) 전막선(2003), 전계서, p.22.

48) 지영선(2002), 전계서, p.68.

제를 주제로 삼고있는 소설을 골라, 소설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체(조별)로 토론학습을 준비하게 하여 탐구공동체 수업을 할 수가 있다.

둘째, 신문을 활용한 탐구공동체 수업이다.⁴⁹⁾ 신문을 활용한 탐구공동체는 신문에 나오는 실제적인 사건이나 이야기를 다루어 보다 효과적인 수업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이 성장해갈수록 그들의 관심과 흥미를 끄는 데에는 대체적으로 소설 속의 가상적인 이야기보다는 실제 일어난 사건이나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신문에 나온 사건이나 이야기는, 특히 그것이 큰 사건이거나 감동적인 기사인 경우에는 국민이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 점에서 신문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국민이 다 함께 보고 느끼고 토론할 수 있는 ‘국민 공동의 텍스트’라고 말 할 수 있다.

셋째, 학생들의 작품을 활용한 수업방안이다.⁵⁰⁾ 학생들에게 교과 주제에 맞는 글짓기를 하도록 하고 그 작품 가운데 한 작품을 뽑아내어 토론 자료로 삼아서 수업을 할 수 있다. 또한 교과 주제에 맞는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하여 연극을 통해서 수업을 전개할 수도 있다.

넷째, 탐구공동체 수업에 토론게임을 활용한 수업방안이다.⁵¹⁾ 토론게임은 긍정과 부정으로 확실하게 입장을 나눌 수 있는 논제에 대해 규칙에 따라 주장과 반박을 행한 후 심판이 설득력의 관점에서 승패를 판정하는 게임 형식의 토론이다. 이는 토론 당사자뿐만 아니라, 심사위원, 청중 등 참가자 모두가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업 방법이다.

다섯째, 대화를 활용한 탐구공동체 수업방안이다.⁵²⁾ 탐구공동체 방법은 구체적 맥락 속에서 전개되는 이야기 자료나 실제적 경험의 기반을 둔 이야기를 교재로 사용한다. 학생들은 그러한 자료를 읽고 질문을 스스로 만든다. 학생들의 질문 중 구성원들 모두가 관심 있어 하는 질문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지게 된다. 질문이 정

49) 조성민(2003), 전계서, p.28.

50) 지영선(2002), 전계서, p.78.

51) 부산광역시 양덕초등학교(1999), “신나는 토의, 즐거운 재량시간”, 「'99교육부 지정 열린교육 시범학교 실천사례집」, p.38.

52) 박진환(2001), “철학적 탐구공동체방법을 통한 인격 교육”, 「경상대학교 국민윤리연구 제53호」, pp.44-45.

해지면 그러한 질문을 출발점으로 해서 대화가 진행된다. 겉으로 보기엔 일반적인 토론 수업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을 보이나 탐구공동체에서의 대화는 정직, 공평함, 성실, 협동, 겸손, 경건 등의 덕목들과 필수적으로 연결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탐구공동체 모형을 활용한 여러 형태의 수업모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탐구지를 활용한 토론수업을 고등학교 [도덕] 교수-학습방안에 적용하여 수업을 전개해 보았다.

탐구지를 활용한 탐구공동체 수업은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는 고전이나 신문 또는 인터넷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활동을 하기 때문에 학습에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다. 요즘 학생들 학교 수업에 재미를 느끼지 못하여 "교실 붕괴" 또는 "학교공동체 붕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언론에서는 보도하고 있다. 탐구공동체는 학교를 "즐겁고 활기가 넘치는"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재미를 느끼면서 합리적인 문제해결 능력 및 논리적인 사고능력 신장과 함께 공동체에 대해 배려하는 태도 등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탐구공동체 교수-학습의 기법과 절차 그리고 수업방안을 차례로 제시해 보기로 하겠다. 탐구공동체는 일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탐구공동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전략과 프로그램 운영방법을 먼저 제시할 것이다. 다음에 탐구공동체의 수업의 중심 활동은 토론이므로, 토론학습의 교육적 의의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탐구공동체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전략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우선 탐구주제 및 그것과 관련되는 자료를 선정하고, 수업 또는 활동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한 다음, 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탐구지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⁵³⁾

53) 조성민(1998), "가치판단능력 신장을 위한 도덕·윤리와 탐구수업과 평가", 「중등 도

(1) 탐구 주제 및 자료의 선정

탐구 주제는 교과목의 목표 및 수업 계획에 따라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가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탐구 주제가 선정되면 그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고 선정해야 한다. 모든 수업과 활동이 그렇듯이, 그것이 기대하는 효과를 최대한으로 거두려면 학생들의 흥미를 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탐구 주제에 맞춰 자료를 수집하는 일은 학생들이 주로 하도록 하고, 그 중에서 탐구지를 만들 대표적인 탐구자료를 선정하는 일은 교사와 학생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좋다.

학생들이 공동체별(조별)로 수집한 자료에 대해서는, 왜 그 자료를 선정했는지, 그 자료가 탐구 주제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어떤 점에서 그 자료가 중요한지 등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 준다. 또는 자료를 예시문으로 삼아 5개 정도의 탐구질문(토론질문)을 설정해 보도록 하는 것도 좋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 수집한 자료를 읽지도 않고 제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탐구 주제와 관련되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그 중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하나만 선정하여 설명을 첨가하거나 탐구질문을 만들어 제출하도록 한다.

교과 수업에서 탐구공동체를 운영한다면, 교육 과정이나 교과서 내용과 직접 관련되는 주제와 자료를 선정하는 것이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고 그만큼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가능하면 다양한 기능을 개발할 수 있고 중요한 지식과 개념들이 많이 포함된 자료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의 선정을 주로 학생들에게 맡겨두면 자료의 교육적 가치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자료가 얼마나 흥미로운가에만 관심을 갖기 쉽다. 따라서 학생들의 흥미를 끌면서도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는 자료를 선정하는 지혜를 교사가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⁵⁴⁾

자료선정에 있어서 신문, 인쇄 매체, 영상 매체 등에는 탈법, 비리, 비행 등 학생들이 보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하는 기사들도 많은데, 특히 도덕교육이나 인성교육

덕·윤리과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서울특별시 교원연수원, pp.13-16.

54) 조성민(2000), “탐구공동체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윤리교육연구 제3집」, 한국교원대학교 도덕·윤리교육학회, p.4

측면에서 어두운 기사, 자료는 수용성과 모방성이 강한 학생들에게 부정적 측면이 있기에 밝은 기사나 미담 사례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도 하나, 지나친 미담 사례는 탐구 수업의 흥미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기에 불법, 비리 사례들도 균형 있게 다루는 것이 좋다고 보여진다. 모방성의 우려도 있지만 탐구공동체 수업 활동을 통해 비판을 통한 자율적 판단 능력과 도덕적 실천 의지를 길러 주는 등 예방적 차원에서의 교육도 필요하다.⁵⁵⁾

(2) 수업 또는 활동 목표의 설정

탐구공동체 활동은 정규 교과 수업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특별 활동이나 특기 적성교육 활동 아니면 학교재량 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특정 교과 수업에서 탐구공동체 활동을 하면 그 수업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것이 분명해야만 탐구지 또는 탐구 질문을 어떤 내용으로 구성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⁵⁶⁾

특별 활동과 같은 비교과 활동에서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리더십 개발을 위한 활동인지, 토론 능력 개발을 위한 활동인지, 아니면 논술 능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인지가 분명해야 한다.

물론 특정 목적이 명시된다고 해서 다른 목적이 무시되는 것이 아니다. 과학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인성을 함양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것은 탐구질문들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 인성 개발과 논술능력의 배양을 공동 목적으로 설정하는 것처럼 몇 가지 목적을 동시에 설정할 수도 있다. 수업 또는 활동의 목표는 탐구지의 질문 내용에 의해 주로 규정된다.

(3) 탐구지의 구성

탐구지 즉 예시문이 포함된 탐구질문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것은, 탐구공동체 수업 및 활동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할 만큼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55) 정병남(2001), “고등학교 윤리과 탐구공동체 수업이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pp.17-18.

56) 조성민(1998), 전계서, p.15.

문제이다. 탐구지는 학생들의 흥미를 끌면서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고 토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탐구질문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배열 방식도 중요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⁵⁷⁾

가. 학생들이 수집한 사례 중에서 예시문으로 선택된 것을 가지고 교사가 교과나 활동의 목표에 맞게 탐구지를 만든다. 가능하다면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학생들이 먼저 조별로 학생들이 직접 탐구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문제에 대한 민감성과 문제의식을 개발하고, 수업이나 활동에 대하여 더 많은 흥미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학생들이 탐구지를 만드는 경우에는 가장 잘 작성한 탐구지를 선정하여 교사가 최종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수업에 투여한다.

나. 탐구질문은 수업 또는 활동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토론을 활성화할 수 있어야 한다.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순 지식을 묻는 질문보다는 주요 개념이나 원리를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예시문에 포함된 주요 개념이나 원리가 적용되는 사례를 신문이나 주변에서 찾아낼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 사건의 인과관계나 개념들의 논리적인 관계를 묻는 질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기 위한 질문, 문제 또는 사태에 대하여 비판적 관점에서 평가하도록 하는 질문과 같이 고등사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질문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순 지식을 묻는 질문을 설정하게 되면 단순 문답식 수업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더 높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토론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예시문에 포함된 문제를 파악하도록 하는 경우와 같이 단순한 질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탐구질문이 그러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는 토론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다. 탐구공동체 수업이나 활동에서 탐구지를 구성할 때 특별히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은, 가정 연계 교육을 촉진할 수 있는 탐구질문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도덕과 탐구공동체 수업에서 더욱 중요시된다. 예를 들면 절약이 탐구 주제라고 한다면, 과소비나 호화 사치 문제를 부모와 함께 토론하고 그 내용을 작성하

57) 정병남(2001), 전계서, pp.18-20.

여 제출하게 하는 내용의 탐구지를 구성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학생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부모 교육도 동시에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아무리 교육을 잘 시켜도 부모들의 바르지 못한 행동이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줌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탐구공동체 수업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과 부모들을 동시에 교육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즈음에 강조하고 있는 사회교육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⁵⁸⁾

라. 사회 연계 교육을 촉진할 수 있는 탐구질문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⁵⁹⁾ 예를 들면, 소비자의 권리가 탐구주제라고 한다면, 최근에 알려진 사례 중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기업체가 있을 경우 그 기업체 사장에게 학생들이 편지를 작성해서 보낼 수 있도록 탐구지를 구성할 수도 있다. 이것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기업체에 대한 교육의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가정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활동과 마찬가지로 탐구공동체 활동이 단순히 학교의 울타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마. 탐구지 작성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질문의 내용이 학생의 발달 수준에 비해 너무 어렵거나 그 표현이 애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질문이 막연한 것도 좋지 않으며, 너무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바. 탐구질문의 작성 못지 않게 그것의 적절한 배열도 중요하다. 처음에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점차로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사고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질문을 배열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관심과 시야를 점점 넓혀갈 수 있다. 탐구질문은 가능하면 단순 사고를 요구하는 질문에서 복잡한 사고를 요구하는 질문의 순서로 배열한다.

사. 가능하다면 탐구지의 내용을 분석 평가하는 질문을 먼저 배열하고, 그 다음 탐구지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개념이나 가치 또는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사례를

58) 조성민(2003), 전계서, p.35.

59) 조성민(2002), “도덕과 탐구공동체 수업과 평가”, 「도덕과 교육 14호」, p.6.

주변에서 찾아보게 하는 질문을 배열한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의 휴대폰 사용을 규제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탐구지를 가지고 토론 질문을 설정하고 배열한다면, 먼저 "휴대폰 사용의 규제가 옳은가?" "규제하는 것이 옳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 등의 질문을 먼저 설정하고, "휴대폰 사용과 같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례를 주변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까?" 와 같은 질문을 던진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해보고 그것으로부터 추출한 일반적인 개념(타인에 피해를 줌)을 주변의 유사한 사례에 적용해 보도록 함으로써 비판적인 사고력과 응용능력을 개발하고 실천의지를 강화할 수 있다.

아. 앞 단계에서 전개된 사고를 바탕으로 그 다음 생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질문을 배열한다. 예를 들면, 어떤 문제나 사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질문을 설정한다면, 먼저 그 문제나 사태의 현황을 생각해 보게 한 다음, 그것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다. 토론을 하고 나서 논술까지 진행하는 경우에는, 토론한 내용이 논술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배열한다. 예를 들면, 무엇이 문제되고 있는지, 어떤 주장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반대논거는 없는지, 최종적인 결론(주장,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토론하면 자연스럽게 논술로 연결될 것이다.

(4) 교수-학습 지도안

탐구공동체 수업의 내용은 주제에 맞게 토론식 수업으로 진행한다.

수업 시작 전 토론을 이끌어 갈 학생을 정하고, 발표 조의 패넌들은 앞자리에 학생들을 마주 보고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하였다. 탐구공동체 활동을 통한 수업의 학습지도안은 다음 <표 1> 과 같다.

<표 1> 탐구공동체 학습 지도안

단계	수업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비고
		교 사	학 생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목표 제시 * 기본규칙 제시 * 수행평가 기준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 기본규칙을 상기시킨다 * 수행평가 기준을 제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목표를 확인한다 * 기본규칙을 확인한다 * 수행평가 기준을 숙지한다 	5분	기본규칙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발표 - 탐구지 발표 - 질문지 발표 - 답변지 발표 - 쟁점 또는 찬반토론 - 질문 및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상황에 따라) * 발표시간을 조절하고 토론의 주제가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 균등하고 적극적인 토론이 되도록 노력한다 * 토론이 과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조별토론의 기본규칙을 상기시킨다 * 발표가 끝나면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쟁점 및 찬반토론을 실시하게 한다 * 질문 및 답변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하는 조는 맡은 역할에 따라 각자가 패널이 되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 * 발표하지 않는 조는 경청자가 되어 필요한 정보를 얻고 또한 발표와 패널토론이 끝난 후에는 자유로이 질문하여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한다. * 다른 조의 발표시 경청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는다. * 발언권을 얻어 질문 및 답변을 하며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한다. * 조별 토론의 기본규칙을 준수하고 민주적인 태도를 갖는다. 	40분	탐구질문지 및 준비된 자료
정리 및 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과정을 정리 설명 종합 * 평가 실시 * 차시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과정을 정리하고 설명 종합한다. * 수업과정을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한다. * 차시 예고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을 제시한다 * 필요한 내용을 정리한다 	5분	평가기준안

(5) 평가

학생들에 대한 평가는 개인별 평가와 공동체(조별) 집단평가로 나누어서 실시한다.

개인별 평가는 개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보기 위한 것이며, 한 조 전체 구성원에게 똑같은 점수를 부여하는 조별 집단평가는 구성원간에 협동심과 공동체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조별 집단평가에서는 잘 한 학생이나 못 한 학생이나 똑같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잘 한 학생이 불평을 할 수 있다. 집단평가는 취지를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고, 가능하면 조별간에 점수차를 크게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⁶⁰⁾

가. 개인별 토론 평가 기준

- * 토론준비 : 수업 중에 작성하도록 내준 과제를 충실히 해냈는가?
- * 적극적인 참여 :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발표하였는가?
- * 타인의견 경청 : 소란을 피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는가?
- * 합리적인 태도 : 타인의 결함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자신의 결함을 인정했는가?



<표 2> 개인별 수업 평가지(예시)

이름/평가기준	토론준비	토론 과정			총점
		적극적인 참여	타인의견 경청	합리적인 태도	
1번 ○ ○ ○					
2번 ◇ ◇ ◇					
3번 △ △ △					

** 각 기준에 대하여 잘함 3점, 보통 2점, 못함 1점을 준다(예)

60) 조성민(2003, “인성과 창의성 개발을 위한 NIE 탐구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교육과학사, pp.120-121.

나. 조별토론 집단평가 기준

- * 자료 준비 : 개인적으로 작성한 탐구질문과 기타 참고 자료를 준비했는가?
- * 자유로운 발표 : 조장은 조원들에게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도록 허용하였는가?
- * 균등한 참여 : 조장은 조원들에게 토론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는가?
- * 적극적인 참여 :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발표했는가?
- * 타인의견 경청 : 소란을 피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는가?
- * 합리적인 태도 : 타인의 결함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자신의 결함을 인정했는가?
- * 창의성 : 조별 기록지에 기록한 내용이 참신하고 독창적인가?
- * 논리성 : 조별 기록지에 기록한 내용이 체계적이며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 내용충실도 : 조별 기록지에 기록한 내용이 타당하고 주제와 관련성이 있는가?

<표 3> 공동체(조별) 수업 집단 평가지(예시)⁶¹⁾

평가기준/조		1조 (6명)	2조 (6명)	3조 (6명)	4조 (6명)	5조 (5명)	6조 (6명)
토론 준비	자료 준비						
토론 과정	자유로운 발표						
	균등한 참여						
	적극적인 참여						
	타인의견 경청						
	합리적인 태도						
토론 결과	창의성						
	논리성						
	내용충실도						
총 점							

** 각 기준에 대하여 잘함 3점, 보통 2점, 못함 1점을 준다(예)

61) 상계서 p.122.

2) 탐구공동체 운영 기법

(1) 교사의 기본 자질과 학생들이 지켜야 할 기본 규칙⁶²⁾

탐구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이 있다. 그것은 '탐구공동체'의 속성으로부터 이끌어 나올 수 있는 것들이다.

가. 다양한 자료를 교사가 수집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교과 수업 또는 활동과 관련지어 연구하는 열성이 있어야 한다. 다른 탐구수업과 마찬가지로 탐구공동체 수업은 강의식 수업보다 더 많은 준비와 연구가 교사에게 요구된다.

나. 교사는 토론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기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은 단기간에 갖추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 교사는 또한 모든 학생들에 대하여 애정(Affection)과 관심(Interest)과 존중(Respect)의 태도(Air)를 가져야 한다. 교사는 물론 모든 학생들에 대하여 공평한(Fair)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공평하게 존중해 주는 공평한 배려의 태도(Fair)를 유지해야 한다.

요컨대 교사는 자료를 적절히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토론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법을 터득해야 할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공평하게 배려하는 태도를 지녀야만 탐구공동체가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탐구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생들이 준수해야 할 다섯 가지의 기본 규칙⁶³⁾이 있다.

첫째,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한다. 이 경우에 조리 있고 또렷하게 다른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한다. 말을 하려고 할 때에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어서 한다. 자신의 견해에 대하여 논평하면 반응하고, 타인의 견해가 옳지 않다고 생각될 때에는 적극적으로 논평한다.

둘째,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한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에는 경청하고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타인의 의견이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

62) 정병남(2001), 전계서, pp.20-21.

63) 조성민(1998), 전계서, p.18.

다. 타인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될 때에는 받아들인다.

셋째, 옆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는다.

넷째, 주어진 과제는 정직하게 수행한다.

다섯째, 옳다고 판단하면 다 함께 실천의지를 다진다.

위의 규칙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보다는 학기초에 교사와 학생이 공동으로 결정하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지키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규칙을 내면화시키기 위해서 수업이나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다 함께 큰 소리로 복창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 탐구공동체 운영 방법

탐구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는 교사의 자질이 갖추어져 있고 학생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 마련되면, 이제는 앞에서 제시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전략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탐구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⁶⁴⁾

가. 교과 안에서 탐구공동체 수업을 할 경우에는, 교과 내용에 대한 강의식 수업이 필요하면 먼저 진행하고, 교과 내용 또는 주제와 관련되는 소재를 선택하여 탐구지를 만들어서 수업을 한다.

나. 최소한 수업 3-4주일 전에 학생들에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고서 자료를 수집하도록 한다. 학기 또는 학년초에 미리 교사가 1학기 또는 1년 계획을 세워 진행하면 학생들이 더 많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좋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수업 1-2주일 전에 수집한 자료를 제출 받아 교사가 단독으로 또는 학생들과 공동으로 탐구지를 구성하여 탐구공동체 수업에 투여한다. 탐구공동체 활동의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 가능하면 조별로 탐구지를 구성해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수업이 준비되어 있으면 토론의 유형을 결정하고 수업의 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한다. 어떤 토론 유형을 택하느냐에 따라 토론진행 방식에도 차이가 난

64) 조성민(1998), 전계서, pp.19-20.

다. 토론 유형에는 교사가 학급 전체를 상대로 진행하는 일제토론, 모든 토론을 진행한 다음에 교사가 전체 의견을 종합하고 정리하는 조별토론, 학생 대표 몇 명이 양쪽으로 나뉘어 토론을 진행하는 패널토론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마. 교사는 학생들에 대하여 공평한 사랑과 관심과 존중의 태도(FAIR)를 유지하고, 탐구공동체의 규칙을 학생들에게 상기시킨다. 어느 공동체에서건 구성원이 규칙을 지켜야 하듯이 탐구공동체의 구성원도 그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앞에서 제시한 탐구공동체의 규칙을 학생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은 탐구공동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수업시간마다 그것을 상기시킴으로써 민주시민의 자질과 공동체 의식의 내면화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

바. 학생들의 토론 활동이 평가되는지를 알려 준다. 특히 교과외 수업에서 수업 평가를 하느냐 않느냐는 학생들의 토론 참여에 많은 영향을 준다. 수업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토론의 규칙(주로 토론의 준비와 과정에 관한 내용)에 대한 준수 정도와 토론의 결과(탐구지에 기록한 내용이나 수업에서 느낀 소감 등을 기록한 내용)를 함께 평가한다. 이 경우에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사. 탐구공동체 활동은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교실 밖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 환경문제에 대하여 탐구 수업을 한다면 미리 오염 현장을 답사하고 조사하여 연구한 내용을 수업 시간에 발표하게 할 수 있다. 또 사회복지 문제에 대하여 탐구 수업을 한다면, 양로원이나 고아원, 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하여, 생각하고 느낀 점을 수업 중에 발표하고 토론하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 탐구공동체가 추구하는 민주시민의 자질과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탐구공동체 토론학습의 교육적 의의

수업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언어가 있기 마련이다. 즉 교사가 학습되어야 할 사항들을 언어로 나타내느냐, 아니면 그것을 제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토론학습은 후자의 학생 중심 학습 지도 형태로 교사와 학생간의 의사 소통을 통한 토론을 바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학습 성과를 학생 자신이 찾아 습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교육적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⁶⁵⁾

인간은 각자 다른 생각, 견해, 믿음, 가치를 갖고 있으며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타인들과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해 하고 있다. 이런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 토론은 중요한 조정 기능을 한다. 또한 토론은 한 문화의 지적, 정치적, 사회적 쟁점에 대한 사회화의 과정이기도하다.⁶⁶⁾

학생들의 학습활동에서 사고를 내형적인 활동으로 본다면 발표는 외형적인 활동이요 사고의 확산 기능이라 할 수 있으며, 토론이란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집단 성원의 지식 경험을 교환하는 학습 수단이요, 교육목표를 달성하려는 학습 지도의 한 가지 형태인 것이다.

외부로부터의 지식 주입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내적 특성과 경험, 그리고 그들의 사고 작용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내부에서 이끌어냄으로써 학생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교사가 설정한 학습성과에 도달하게 하려는 것이다.

토론학습은 일반 강의식 교수법에 비하여 과제의 정도, 고차적인 사고, 태도 및 동기의 학습에 효과적이며, 보다 많은 학생의 활동과 피이드백을 허용하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이해의 증진 및 문제 해결 기능의 발달에서 잘 활용하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⁶⁷⁾

첫째, 토론에 의한 학습은 집단 성원에 의해 일어난다. 이 집단내의 성원들은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이다.

둘째, 토론학습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영역은 비판적 사고, 민주적 기능, 인지적 능력 등이며 또한 인간관계의 개선과 같은 정의적 영역의 수업 목표 달성에도 효과적인 것이다.

셋째, 토론학습은 말하고, 듣고, 관찰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 정보에 동화하는

65) 광주광역시교육청(2002), “초등학생을 위한 토론학습 길라잡이”, 「토론학습실천사례집」, p.5.

66) 강태완 외(2003), 「토론의 방법」, 커뮤니케이션북스, p.15.

67) 광주광역시교육청(2002), 전게서, pp.5-6.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청취자로서 학생은 구두어에 반응하고, 관찰자로서 얼굴 표정,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인 시호에 반응한다. 남의 생각을 듣고 자기의 생각을 형성하고 자기의 의견을 표시함으로써 피이드백을 받으면서 학습한다.

넷째, 토론학습은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즉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고 남의 의견에 반응한다.

토론학습에서 유의할 점은 진행되는 중에 안이한 타협에 만족하든가, 자기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강요한다든가 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어디까지나 사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근거 있는 내용을 집단구성원과 같은 처지에서 발언하고 그 내용을 서로 비판하여 보충하고 서로 검토하여 상호 의견 대립을 지양함으로써 집단사고에 의한 집단 결론을 이끌기 위하여 각자가 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IV. 탐구공동체 모형의 고등학교 [도덕]

수업에의 활용

1. 탐구 주제의 선정과 기본 계획

1) 탐구 주제의 선정

<표 4> 고등학교 [도덕] 연간지도 계획표.⁶⁸⁾

단원명	소단원명	주 제 명	시간
I. 현대 사회 와 도덕 문제	1. 현대 사회의 도덕 문제와 환경 문제	(1) 현대 사회의 변화추세 (2) 현대 사회의 도덕 문제 (3) 환경 문제와 그 해결 방안	14 ~ 17
	2. 청소년 문제와 청 소년 문화	(1) 사회변화와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2) 현대 사회와 청소년 문제 (3) 건전한 청소년 문화의 정립	
	3. 도덕 공동체의 구 현과 공동선의 추구	(1) 도덕 공동체의 의미와 공동선의 중요성 (2) 도덕 공동체의 구현을 저해하는 요인들 (3) 건전한 청소년 문화의 정립	
	* 인물 학습	이하응, 노벨	
II. 민족 통일 문제 와 한국 의 모습	1. 민족 분단과 남북 한 사회 현실	(1) 민족 분단의 과정 (2) 민족 분단과 남북한 사회·문화의 비교 (3) 민족 분단의 극복 방향	14 ~ 17
	2. 남북한의 통일 정 책과 통일의 과제	(1) 우리의 대내외적 통일 환경 (2) 남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 (3) 통일 실현을 위한 우리의 자세	
	3. 민족 공동체의 번 영과 통일 한국의 모 습	(1) 민족 공동체의 당면 과제와 해결 (2) 통일 한국의 미래상 (3) 세계 속의 바람직한 한국인상	
	* 인물 학습	연개소문, 나폴레옹	

68) 1종 도서 편찬 위원회(2002), 전개서, p.47.

위와 같은 연간 지도 계획에 따라 탐구공동체 수업을 위한 탐구 주제를 교과서 내용과 관련되면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 탐구지 제작에 용이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교사가 창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해 보았다.

<표 5> 연간 탐구 주제 선정표

단원명	소단원명	탐 구 주 제
I. 현대 사회 와 도덕 문제	1. 현대 사회의 도덕 문제와 환경 문제	(3) 환경 문제와 그 해결 방안 탐구 주제 : 새만금 간척 사업은 추진되어야 하는가?
	2. 청소년 문제와 청소년 문화	(3) 건전한 청소년 문화의 정립 탐구 주제 : 모둠별로 자신들이 요즘 향유하고 있는 문화 활동을 조사해 보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 정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 보자
	3. 도덕 공동체의 구현과 공동선의 추구	(2) 도덕 공동체의 구현을 저해하는 요인들 탐구 주제 : 집단이기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II. 민족 통일 문제 와 한국 의 모습	1. 민족 분단과 남북한 사회 현실	(3) 민족 분단의 극복 방향 탐구 주제 :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하는가?
	2. 남북한의 통일 정책과 통일의 과제	(3) 통일 실현을 위한 우리의 자세 탐구 주제 : 청소년들이 남북통일을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러한 노력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민족 공동체의 번영과 통일 한국의 모습	(3) 세계 속의 바람직한 한국인상 탐구 주제 : 통일 이후에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는가?

2) 기본 계획

탐구공동체 모형을 활용한 수업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공동체 조직 및 편성] → [주제 선정] → [공동체 활동] → [보고서 작성] → [수업] → [평가]

(1) 공동체(조별) 조직 및 편성

학생들에게 먼저 수업실시의 의의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진행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수행평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탐구지 작성요령과 조별활동의 순서, 역할분담의 요령, 탐구질문지 작성방법 등을 숙지하도록 하였다.

6인이 1개조가 되어 6개조를 편성하고, 학급 인원이 36명에 미달하거나 초과 시는 1개조를 5인 또는 7인으로 적절히 조정하였다. 각 조의 명칭을 정하고 조장을 선정하고, 조 명칭은 조원들끼리 상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조장은 조원들 중에서 지원자나 추천을 받아 선출하도록 하고, 서로 기피하여 조장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사가 선출을 도와주었다. 학생들은 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제발표 준비, 주제와 관련한 탐구지 작성, 탐구지에 근거한 탐구질문지 작성 등을 위해 주제발표자, 탐구지 작성 및 발표자, 탐구질문지 작성 및 발표자를 선정하였다.

(2) 주제 선정

도덕 교과와 관련해서 소단원 당 1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소단원 당 1개의 주제밖에 선정할 수 없는 것은 인문계 고등학교의 특성상 탐구공동체 수업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주제는 단원의 내용, 자료 조사의 용이성, 탐구지 작성의 용이성, 교사의 의지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으로 정했다.

(3)공동체(조별) 활동⁶⁹⁾

69) 이 부분은 박성철(2003), “교과재량활동을 통한 탐구공동체 지도사례”, 「교육마당 21」, 7월호, p.107에서 도움을 받았음.

조별활동을 위해 먼저 주제를 분석하고 각 조가 발표할 주제에 따라 다양한 학습교재(인터넷, 신문기사 등등)를 탐색하고 그 자료에 맞는 탐구지와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1차 점검을 교사와 조장이 함께 하였다. 조사된 자료와 단원의 연관성, 내용의 적정성, 질문의 타당성 등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부적절한 점은 수정하도록 조언을 해주고 충분한 토의와 참고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었다. 1학년 8개 학급을 수업 전에 조별로 사전점검을 일일이 해주는 과정은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나 이 부분이 수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때론 점검하고 의논할 시간이 부족해 점심시간이나 방과후에 시간을 정해놓고 준비하기도 했다. 학생들 스스로도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준비가 부족하면 수업시간 전체가 허술해지고 빈약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대체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자신들이 탐구해야할 주제에 맞는 자료는 별 무리 없이 조사해오고 찾아왔으나 가장 곤란해하는 것은 역시 탐구질문의 제작이었다. 수업 내용에 맞는 알맞고 적절한 발문을 찾아내고 작성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도 몇 번 반복되고 진행되어 갈수록 익숙해져서 별다른 수정이나 보완 없이도 수업이 가능한 좋은 탐구질문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1차 점검이 마무리되어 조장과 조원들과의 의논과 토론 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다시 2차 점검을 하여 질문지에 대한 토론을 전개할 (주제에 맞는 진행 발언을 할) 학생을 찬성과 반대 2명씩 정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과 반박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때로는 너무 단순하거나 결론이 뻔한 토론을 준비해오는 조가 있어 사전조율이 필요하기도 했고 너무 많은 자료를 조사해 오기도 하여 효과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기 위한 선별작업도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었다. 하지만 학생들이 나름대로 자료와 주제 발표를 위한 내용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며 관련기사의 내용을 숙지하고 원인과 결과를 밝혀보는 시간도 갖게 되어 전체적인 사건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능력이나 여타의 것들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잘잘못을 분별하는 능력은 상당히 향상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수업을 위한 모든 준비는 공동체별로 각 조원이 협동하여 공동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4) 보고서(탐구지 및 질문지) 작성

조별로 합의된 자료를 발표하거나 자료로 배포하기 위해 발표 2~3일 전까지 제출용 1부와 학급 인원 수 만큼을 준비하고 각종 수업 보조 자료 및 기자재 등을 준비하여 수업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5) 수업

탐구공동체 수업의 내용은 주제에 맞게 토론식 수업으로 진행한다.

수업 시작 전 발표 조의 발표자들은 앞자리에 학생들을 마주 보고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하였다. 탐구공동체 활동을 통한 수업의 학습지도안은 <표 2> 참조.

(6) 평가

제 7차 교육 과정에서의 고등학교 도덕과 평가의 일반적인 방향이나 평가 기준⁷⁰⁾은 “도덕과의 평가는 도덕성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측면에 대한 통합적 평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도덕과의 평가에서는 도덕적 가치·규범에 대한 이해,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 도덕적 신념과 태도, 실천 의지와 행동 성향 등을 포함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는 ‘도덕과의 인지적 영역의 평가에서는 대체로 도덕적 가치·규범의 의미, 근거에 대한 이해 정도, 도덕적 사고력과 추론 능력 정도, 가치 판단의 합리성 정도 등을, 정의적 영역의 평가에서는 도덕적 민감성과 열정성, 도덕적 가치·규범에 대한 내면화 정도 등을, 그리고 행동적 영역의 평가에서는 도덕적 가치·규범을 실천하고 습관화한 정도를 평가의 준거로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탐구공동체 수업 평가 방법 및 집단 평가지(예시)는 2장 3절 1항에 있는 평가 방

70) 1종 도서 편찬 위원회(2002), 전게서, pp.35-36.

법과 <표 2> 개인별 수업 평가지(예시), <표 3> 공동체(조별) 수업 집단 평가지(예시)⁷¹⁾ 참조.

2. 탐구공동체 교수-학습의 전개

1) 탐구 주제 : 새만금 간척사업은 추진되어야 하는가?

(1) 단원 소개

대단원 - 현대 사회의 도덕 문제와 환경 문제

중단원 - 환경 문제와 그 해결 방안

소단원 - 환경 문제의 극복

소단원 성격 - 이 단원에서는 환경 문제의 극복 방안을 다루고 있다. 환경 문제는 여러 교과에서 다루어지고 있지만, 도덕과는 보다 심층적인 인간의 태도 차원에서 접근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주로 인간의 자연관 및 환경 의식의 측면에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단원을 다루는 데 있어 유의할 사항은, 어떤 선입견이나 견고한 가치 판단을 전제하지 않고 다양한 사고와 논의의 가능성을 최대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⁷²⁾

(2) 수업 목표

- 환경 문제의 근본 원인을 인간의 자연관과 환경 의식의 차원에서 말할 수 있다.
- 환경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공동체별 활동을 통해 타인에 대한 배려의 태도를 지닐 수 있다.
-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비판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 합의된 결정으로 옳다고 판단되는 것을 실천하려는 자세를 가진다.

71) 상계서 p.122.

72) 1종 도서 편찬 위원회(2002), 전계서, p.56

(3) 본시 교수-학습 지도안

<표 6> 본시 교수-학습 지도안 1

단계	수업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비고
		교사	학생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목표 제시 * 기본규칙 제시 * 수행평가 기준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 기본규칙을 상기시킨다 * 수행평가 기준을 제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목표를 확인한다 * 기본규칙을 확인한다 * 수행평가 기준을 숙지한다 	5분	기본 규칙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문제의 근본 원인 - 서구인의 인간 중심적 사고 방식 - 생태계에 대한 무지 - 환경이 공공재화라는 사실의 망각 * 환경 문제의 극복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문제의 원인을 인간의 자연관과 환경 의식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자연 지배에 대한 베이컨의 자신감’을 함께 읽고, 서양 근대인의 일반적인 자연관을 생각해 보게 한다. *환경 문제의 극복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하게 한다. * 탐구지를 통한 조별 발표 및 토론을 유도한다. *조별 발표 시 수업분위기를 형성한다 * 토론시 적절한 지적과 지시를 통하여 원활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구지 및 탐구 질문지를 통한 조별 발표 및 토론 학습 수행 	40분	탐구 질문지 및 준비된 자료
정리 및 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론과정을 정리 설명 종합 * 평가 실시 * 차시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한 내용을 정리한다 * 토론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한다. -이번 토론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이번 토론에서 반성할 점이 있다면? * 차시 예고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을 제시한다 * 필요한 내용을 정리한다 	5분	평가 기준안

(4) 수업 과정

<표 7> 탐구지 1

새만금사업의 찬반 쟁점들 http://jbchbank.co.kr

1. 이슈의 배경
 새만금사업이란 2012년 이후에 농지 28,300ha와 담수호 11,800ha의 수자원을 확보하여 미래의 식량부족, 물부족 시대에 미리 대비할 목적으로 정부가 9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간척사업(전북 부안에서 군산앞바다의 비응도를 연결하는)이다. 그런데 96년 시화호 오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환경 단체 등이 새만금호의 수질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사업을 일시 정지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중간점검과 필요한 추가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99년 5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새만금호의 경제성, 수질, 해양환경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정부 당국 및 해당 지자체인 전라북도와 새만금 간척사업에 따른 환경 악화를 이유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간에도 이견이 있어 사업 시행에 대한 최종 결정이 계속 미뤄져 왔다. 이달 말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사업 시행에 대한 찬반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2. 주요 쟁점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해 사업시행의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을 대비시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경제성
 ㄱ) 찬성측 견해
 새만금 사업은 식량안보를 위한 새로운 농지 확보 및 향후 저해안시대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필요한 사업이다. 새만금사업은 2012년 이후에 우리가 사용할 농지 28,300ha와 담수호 11,800ha의 수자원을 확보하여, 미래의 식량부족, 물부족 시대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농지감소와 식량자급도 하락, 기상이변, 국제 쌀 시장의 취약성, 그리고 통일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을 감안 할 때 새로운 농지확보를 위한 간척 사업은 시급한 일이다. 새만금사업을 통하여 여의도 면적의 140배인 40,100ha의 국토확장과 쌀 14만톤을 생산 할 수 있게 되며, 이 물량은 전북도민 200만명이 270일을 소비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이다. 뿐만 아니라 방조제를 통해 교통거리 단축 등 육상교통 환경이 개선되고 인근 바다와 변산 국립공원이 어우러진 종합생태관광권이 형성되어 교통·관광 및 새로운 환경조성의 효과가 기대된다.

ㄴ) 반대측 견해
 간척사업 찬성론 쪽에서 주장하는 식량안보와 국토확장의 명분은 지난 10여년 사이 퇴색한 것이 사실이다. 쌀은 소비가 급감하면서 오히려 남아도는 실정이고 농지 부족보다는 채산성이 맞지 않아 농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간척·매립사업인 새만금 사업은 수산물 생산에 필수적인 생산기반인 바다와 갯벌을 없애므로써 양적인 측면에서나 질적인 측면에서 본래의 식량안보를 왜곡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실패로 막을 내린 시화호 담수화 사업 등 무분별한 간척과 개발에 따른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마지막 남은 새만금 갯벌을 없애기 전에 지난 30년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간척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먼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갯벌의 가치 평가

ㄱ) 찬성측 견해

해양연구소는 1996년 12월에 [갯벌보전과 이용의 경제성평가]에서, 갯벌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수산물생산, 서식지기능, 정화기능 및 심미적 기능 등 갯벌의 공익적 기능까지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넣은 반면, 논을 평가할 때는 미곡생산 기능만을 계산함으로써 논지의 공익적 가치를 제외시킨 결과 갯벌이 논보다 3.3배의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새만금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경제성분야)에서는 논을 홍수조절, 수자원함양, 토사유실방지, 수질정화, 대기정화, 휴식공간제공, 산소공급 및 대기냉각기능 등의 공익적 기능까지 합해서 계산한 결과 논이 오히려 갯벌보다 1.33배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ㄴ) 반대측 견해

국토의 3%(총 면적 약 2815제곱킬로미터)를 차지하던 갯벌은 지난 12년 사이에만 25%가 사라졌고, 세계 5대 갯벌인 새만금을 비롯해 간척 중인 곳까지 포함하면 절반 가까이가 줄게 된다. 학계 연구 결과 갯벌 생성에는 4500~2만년이 걸리지만 파괴하는 데는 20년이 채 안 걸린다고 한다. 갯벌이 사라지면 연안 해양생물의 90% 정도가 먹이사슬이 끊기고 서식지를 잃게 된다. 새만금을 비롯한 서해안 갯벌은 저어새 등 멸종위기 조류의 대규모 서식지이자 철새의 중간 기착지로 세계적인 보존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새만금 사업의 입안 당시에는 이런 갯벌의 가치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3) 수질문제

ㄱ) 찬성측 견해

반대론자들은 새만금호의 수질문제를 시화호와 비교하면서 문제시하지만, 새만금호는 오염원의 분포, 유입하천의 수질, 호수의 물 순환 주기, 수질대책준비기간 등 제반 여건에서 시화호보다 크게 유리하여 수질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새만금호는 본격적인 용수 사용까지는 아직 10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고 수질보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어 새만금호가 제2의 시화호가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한편 농업기반공사측은 새만금 담수호 수질개선을 위해 범 정부차원의 대책이 추진되고 금강호 희석수 도입, 인공습지 설치, 친환경적 농법 사업 등으로 얼마든지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시화호 주변에는 반월, 안산공단 등 오염원이 밀집해 있지만 새만금 수질을 위협하는 축산폐수 등의 배출지는 전주, 김제, 익산 등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은 시화호보다 5배나 양호하며 담수호의 물 순환기간도 시화호(10개월)에 비해 4배나 빨라 썩을 염려가 없다.

ㄴ) 반대측 견해

지난해 12월 제출된 환경부의 새만금호 수질에 관한 1차 보고서의 결론은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전라북도 등 새만금사업의 계속 추진을 요구하는 쪽이 내놓은 대책을 모두 동원해도 만경수역의 총인 농도는 목표수질인 4급수에 못 미치는 5급수 수준에 머무른다는 것이었다. 한편, 올해 3월에 발표한 2차 수질예측에서는 지난 보고서에서 "실현 가능하다"고 전제한 대책들조차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이 적지 않아, 실제 수질은 예측한 것보다 나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 탐구 질문지

1.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까?
2. 국토개발과 관련된 국책사업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당신은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논거를 반박한 다음, 몇 개의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세워보세요

4. 환경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새만금 간척사업은 추진되어야 하는가?

사회 : 오늘 토론할 문제는 지난 시간에 예고한 것처럼, '새만금 간척사업은 추진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각 조장이 1분 동안 자신의 기본입장만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찬성 쪽부터 차례대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물 : 간척 사업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지감소와 식량자급도 하락, 기상이변, 국제 쌀 시장의 취약성, 그리고 통일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우리 나라의 제반 여건을 감안 할 때 새로운 농지확보를 위한 간척사업은 시급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조제를 통해 교통거리 단축 등 유상교통 환경이 개선되고 인근 바다와 변산 국립공원이 어우러진 종합생태관광권이 형성되어 교통, 관광 및 새로운 환경조성의 효과가 기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찬순 : 우선 간척사업 때문에 수도권에 몰린 인구를 분산시킬 수 있으며,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공업단지 및 주택거주지를 지방으로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서해안은 동해안과는 달리 수도권에 가까이 있으므로, 썰리리멘들의 직장생활에도 그다지 큰 부담이 없어, 지금의 과천, 고양, 안산, 성남 등의 위성도시들의 기능을 간척지에 옮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 :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전라북도 지역의 갯벌이 90%이상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갯벌이 수산물 생산과 생물들의 서식지, 오염정화, 재해방지, 레크리에이션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하는 등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환경부 연구보고서를 통해 갯벌이 농경지와 비교했을 때 경제적 가치를 더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대 :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해 만금 간척사업의 예산이 앞으로 얼마나 증가할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공사 허가시 사업비가 8천 2백억 원에서 1조 3천억 원으로 그리고 사업지연에 따른 물가인상과 보상비 증가로 1998년 말 현재 2조510억 원으로 2.56배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향후 추가될 환경관련 시설 및 조치에 따른 비용은 예측할 수 없지요. 게다가 전라북도에서는 10-18조원의 추가투자를 요구하는 복합산업단지 개발안까지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고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지금까지 기본 입장을 들었고 이제부터 자유롭게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갯벌이 농경지와 비교했을 때 경제적 가치가 더 높을 것이라고 말씀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만금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에서는 논의 풍수조절, 수자원함양, 토사유실방지, 수질정화, 대기정화, 휴식공간제공, 산소공급 및 대기냉각기능 등의 공익적 기능까지 합해서 계산한 결과 논의 오히려 갯벌보다 1.33배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먼 미래를 내다보았을 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갯벌,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말 할 수 없을 만큼 큼니다. 그 경제적 가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그런 자연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되돌리기 힘듭니다. 더 이상의 갯벌 감소는 용납되어선 안 됩니다. 하루빨리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방조제 공사가 60%이상 진척된 상황에서 공사를 중단한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바람직한 대안이 아닙니다. 공사 중단 시에는 이미 투입된 토석이 새로운 환경재앙을 초래하게 되며, 방조제를 원상태로 걷어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특히 이미 투자된 1조 1,385억여 원, 연간 200억 원에 이르는 유지관리비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이미 집행된 4,310억 원의 보상비 회수문제가 있습니다.

반대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추가될 환경관련 시설 및 조치에 따른 비용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공사 허가시 사업비가 8천 2백억원에서 1조 3천억원으로 그리고 사업지연에 따른 물가인상과 보상비 증가로 1998년말 현재 2조 510억원으로 2.56배 증가하였습니다.

찬성 : 하지만 간척사업을 하여 얻을 이익을 생각한다면, 그런 투자는 권한다고 봅니다. 만약 예산이 정 문제가 된다면, 공사의 전면 중단보다는 공사 진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 공사 진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찬성: 이미 정부에서는 환경단체가 제기한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문제와 관련해 새만금 간척사업을 일부 축소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정부는 통진수역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만경수역 처리에 관해서는 방조제는 완공하되 시화호처럼 갑문을 통한 바닷물이 한시적으로 드나들게 하는 해수유통안, 만경수역 공사를 일시 유보하는 유보방안, 만경수역 관련 계획을 취소하는 취소방안 등 3가지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 대안이 있기 때문에 해결 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반대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반대측 의견 말씀해주십시오.

반대 : 저는 그런 대책들이 정말 실제로 이루어질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오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고 유역의 하천으로 유입되어 새만금호 오염을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고, 계획대로 하수관거가 설치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하수관거 설치비는 종말처리장 건설비의 21x에 불과해 하수종말처리장만 건설하고 오폐수 차집관로는 설치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시공되고 제구실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회 : 오폐수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갯벌 공사를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는 이쯤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간척사업이 추진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죠.

반대 : 새만금호에 영향을 미칠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의 최하류 지점에서의 수질을 시화호의 수질과 비교해보면 만경강의 수질은 '96년 평균 COD가 17.6ppm으로 동기대비 시화호의 수질보다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시화호의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기 전인 '93년과 비교하면 4.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새만금 간척사업이 제2의 시화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찬성 : 그렇지 않습니다. 새만금호는 오염원의 분포, 유입하천의 수질, 호수의 물 순환 주기, 수질대책준비기간 등 제반 여건에서 시화호보다 크게 유리하여 수질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새만금호는 본격적인 용수사용까지는 아직 10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고 수질보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어 새만금호가 제2의 시화호가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시화호 주변에는 반월, 안산고단 등 오염원이 밀집해 있지만 새만금 수질을 위협하는 축산폐수 등의 배출지는 전주, 김제, 익산 등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은 시화호보다 5배나 양호하며 담수호의 물 순환기간도 시화호(10개월)에 비해 4배나 빨라 썩을 염려가 없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사회 : 의견이 팽팽해서 말이죠.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끝낼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논의 한 것을 종합하면, 간척사업을 추진하였을 때, 생기는 토지를 잘 가꾸는 의견과 간척사업을 하면 잃게될 것들의 중요성이 대립하고 있고, 결정에 따른 정부에 대책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열띤 토론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죠. 다음 주에 다른 주제 갖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탐구 주제 :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하는가?

(1) 단원 소개

대단원 - 민족 분단과 남북한 사회 현실

중단원 - 민족 분단의 극복 방향

소단원 - 분단 극복의 장애요인

소단원 성격 -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 통합의 측면에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그 기본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이

단원의 공부를 통하여 통일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전쟁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대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요즘 학생들의 의식을 일깨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한의 사회 현실에서 교과서 외의 자료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⁷³⁾

(2) 수업 목표

- 분단 극복의 필요성을 근거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 분단 극복의 장애 요인을 열거할 수 있다.
- 분단의 장애요인으로서 우리 사회의 사상적 갈등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
- 공동체별 활동을 통해 타인에 대한 배려의 태도를 지닐 수 있다.
-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비판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 합의된 결정으로 옳다고 판단되는 것을 실천하려는 자세를 가진다.



73) 1종 도서 편찬 위원회(2002), 전게서, p.141.

(3) 본시 교수-학습 지도안

<표 8> 본시 교수-학습 지도안 2

단계	수업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비고
		교사	학생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목표 제시 * 기본규칙 제시 * 수행평가 기준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 기본규칙을 상기시킨다 * 수행평가 기준을 제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목표를 확인한다 * 기본규칙을 확인한다 * 수행평가 기준을 숙지한다 	5분	기본 규칙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단극복의 장애 요인 - 남한 사회가 지닌 장애 요인 - 북한 사회가 지닌 장애 요인 - 국제정치적 측면에서의 장애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단극복의 장애 요인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으로 나누어 찾아보도록 유도한다 *남한사회가 지니고 있는 장애요인, 북한사회가 지니고 있는 장애 요인, 국제정치적 측면의 장애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남북한의 단절에 따른 장애요인을 설명한다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권익 등 이해관계의 대립에 따른 장애 등을 설명한다 *탐구지를 통한 조별 발표 및 토론을 유도한다. *조별 발표 시 수업분위기를 형성한다 * 토론시 적절한 지적과 지시를 통하여 원활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구지 및 탐구 질문지를 통한 조별 발표 및 토론 학습 수행 	40분	탐구 질문지 및 준비된 자료
정리 및 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론과정을 정리 설명 종합 *평가 실시 *차시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한 내용을 정리한다 * 토론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한다. -이번 토론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이번 토론에서 반성할 점이 있다면? * 차시 예고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을 제시한다 * 필요한 내용을 정리한다 	5분	평가 기준안

(4) 수업 과정

<표 9> 탐구지 2

[시론] 北韓정권 56년과 우리 國保法

李 炳 浩 (前국정원 차장·울산대 초빙교수)

지난 9일로 북한 정권이 수립된 지 56주년이 지났다. 1948년 9월 북한 정권은 보통의 사회주의 국가로 출범했다. 56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 보통의 사회주의는 ‘우리식 사회주의’ 라는 북한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우리식 사회주의’ 는 겉포장일 뿐 실질적 내용물은 김정일 독재체제다. 북한 주민은 수령 절대주의에 따라 ‘수령(김정일)’ 에게 복무의 의무만을 지닌 사실상의 노예로 전락했다.

과거 레닌이 내세운 공산주의자 윤리 기준은 ‘프롤레타리아혁명에 공헌하는 모든 행위는 정당하다’ 는 것이었다. 이 기준이 북한에서는 김정일로 바뀌었다. 그를 위해서라면 자식이 부모를 고발해야 하고 용천 참사 같은 화급한 상황하에서도 인명보다는 김정일의 사진을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이 북한 사회의 윤리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김정일 위원장은 북한 관리에 성공한 셈이다. 수백만명이 굶어죽고, 수십만명이 비참하게 나라 밖에서 유랑해도 끄떡없는 내구성까지 확보해 놓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북핵문제를 일으켜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을 받고자 ‘굳히기’ 를 시도하고 있고 거의 성공 단계에 와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김 위원장이 북한의 체제방식과 그 가치를 우리에게까지 확산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여전히 멈추지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특히 6·15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남 적화 노력은 보다 세련되고 정교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번지는 반미 분위기와 대북 화해 분위기를 교묘히 부추기고 편승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민족 공조’ 를 내세워 우리 젊은 세대의 감성을 자극하고, 남북 대화를 갈망하는 우리 정부의 바람에 적절히 화해의 모양을 갖추어주면서 경제 원조의 실리만을 챙기는 ‘게임’ 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있다.

그러면서도 때때로 생트집을 잡아 멀쩡한 남북 대화 약속을 깨고 우리 정부로 하여금 남북 대화를 간청토록 하는 ‘패턴’ 을 반복한다. 이산가족 상봉도 찢끔찢끔 생색을 내는 한계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일련의 행동 양상은 북한이 진정한 화해와 평화 공존을 바라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낸다.

냉전을 승리로 이끌고 얼마 전 유명(幽明)을 달리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신뢰 하되 검증하라(Trust, but verify)” 는 공산주의와의 대결에서 유념해야 할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간 우리의 대북(對北) 햇볕정책은 과도한 정도의 ‘신뢰’ 만 있었지 ‘검증’ 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추진되었다. 북한이 어치구니없는 ‘몽니’ 를 부려도 우리의 지속적인 포용과 아량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가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사회만 일방적으로 변해 버렸다. 노무현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국가보안법 폐기도 북한에 대한 근거 없는 신뢰에서 비롯되고 있다.

현재 국보법 파동은 국론의 격렬한 분열이라는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위험성과 부작용은 국보법 폐기를 계기로 정부와 여당이 헤어날 수 없는 ‘신뢰의

늪’에 깊이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있다.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감행된 국

보법 폐기로 정부 여당은 북한에 발목을 잡히는 형국을 자초할 수도 있다. 북한이 판을 깨면 폐기를 주도한 여권은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라면 레이건 전 대통령이 말한 ‘검증’의 잣대는 적용될 수 없다. 북한이 어떤 도발행위를 해도 이를 좋게 보려는 ‘신뢰’만이 작용하게 될 것이고 북한체제의 본질적 위험성은 계속 외면될 것이다.

인권 모범국이 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 명분을 위해 북한에 대해 할 말도 못하는 처지가 된다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 가치가 조금이라도 손상받게 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 2004. 09. 14일자 조선일보--

<표 10> 탐구지 3

개혁의 시험대, 보안법 폐지

이원섭 논설위원실장

국가보안법처럼 생명력이 질긴 법도 없을 듯하다. 역사적 전환기마다 악법이란 지탄을 받았지만, 끝내 살아 남았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직후 한때 개폐론이 힘을 받았으나 고비를 넘지 못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보수 원조’ 김종필 자민련 총재의 도움으로 집권한 탓에 법 개폐에 무게가 실리지 않았다.

이런 국가보안법이 시대 흐름에 밀려 기어이 운명이 바뀔 모양이다. 찬양·고무죄, 불고지죄 등 인권침해 독소조항으로 ‘억울한 죄인’을 양산한 원죄로 더는 버틸 기력을 잃었다. 보안법을 적극 옹호해 왔던 한나라당조차 일부 골수분자를 빼곤 개정론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로 몰렸다.

이번에는 기필코 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각오도 만만치 않다. 민변을 비롯해 많은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폐지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완전 폐지로 당론을 정했고, 민주당은 폐지후 대체입법 주장을 펴고 있다.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의 태도가 어느 때보다 주목될 수밖에 없다. 열린우리당은 법사위에서 폐지와 개정 양쪽을 두루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어떻게든 올해 안에 결판을 내겠다는 의지로 볼 수도 있으나, 폐지를 추진하다 여의치 않으면 개정하는 선에서 타협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들어 미덥지 않다.

국가보안법 처리를 놓고 정치권의 태도는 크게 다섯 가지로 갈린다. 완전폐지론, 폐지후 대체입법론, 전면개정론, 소폭개정론, 존치론이 그것이다. 민주화 흐름에 밀려 존치

론은 이미 명분을 상실한 상태다. 하지만 개정론이란 위장탈을 쓰고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개정론은 물론이고 대체입법론도 큰 틀에서 존치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냉전의 산물인 보안법이 명실상부하게 폐지되지 않는 한 이 법에 가위눌려 살아온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는 그대로 온존할 터이다.

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핵심 논리가 시기상조론이다. 북한의 남침 위협이 사라지지 않았으므로 ‘반국가단체’ 딱지를 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질적으로 크게 달라졌다. 일시적으로 소강국면에 들어가 있지만, 남북 당국 간 회담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며, 장성급 회담이 열려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논의할 물꼬를 튼 상태다. 남북간 전쟁 위험도 어느 때보다 줄어들었다. 보안법이 아니더라도 현행 형법에 규정돼 있는 내란죄나 외환죄중 간첩죄 조항으로도 국가안보를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 그것이 걱정된다면 형법을 추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터이다.

17대 국회는 개혁을 갈망하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구도다. 대통령 탄핵이란 야당의 자살골에 힘입어 덤을 얻은 정치지형이다. 기득권을 깨 국민 바람에 답해야 한다.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식지 않은 9월 정기국회에서 보안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또 유아무야될 가능성이 크다.

실체가 모호한 국가 정체성 논란에 휘말려들어 실속없이 국민에게 ‘개혁 피로감’을 불러일으킬 게 아니라 실질적 효력을 끼치는 보안법을 폐지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다. 공연한 입씨름으로 진을 빼지 말고 실천으로 말해야 한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진정성이 중요하다. 현실에 안주하면 다음을 기약할 수 없다. 보안법 폐지는 노무현 정권과 의원 개개인의 개혁성을 가늠할 리트머스시험지다.

2004. 8. 16 한겨레 신문

** 탐구 질문지

1.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까?
2.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가 통일에 대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당신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논거를 반박한 다음, 몇 개의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세워보세요
4. 분단극복의 장애요인으로서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들 간의 이념적 갈등이 심각한 데 이러한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하는가?

사회: 오늘 토론할 문제는 지난 시간에 예고한 것처럼,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각 조장이 1분 동안 자신의 기본입장만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찬성쪽부터 차례대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물: 저는 우선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냉전 시대를 배경으로 생겨난 법이므로 지금 현 실정에는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정상회담, 이산가족 상봉, 물적 지원 등 문화적인 교류를 통해서 평화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는데 북한을 반국가적인 단체로 규정해서 감시하고 경계한다는 법이 있는 것은 모순이 아닐까요? 이런 분위기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면 북한에 대한 신뢰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 북한과의 평화적인 분위기를 생각해서 폐지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다음 찬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찬수: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 정권유지를 위해 쓰였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를 위해 힘쓰시면 민주화 인사나 통일 운동을 하는 통일 운동가들을 모두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 잡아가지 않았습니까? 국가보안법이 원래 목적보다 오히려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탄압으로 쓰였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인권 탄압을 막기 위해서라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그 동안의 국가보안법이 제 구실을 못했다는 말씀인가요?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쓰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탄압되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반대 쪽 의견을 들어보죠.

반물: 저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합니다. 원래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을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우리 나라의 자유 민주수호 체제를 북한의 위협에서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 법을 폐지시킨다면 사회주의 운동이라든가 간첩 활동 등 여러 가

지 활동들은 더욱 더 수월해 질 것입니다.

사회: 국가의 존립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국가보안법이 폐지한다면 북한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는 말씀이군요. 다음 반순이의 의견 들어보죠.

반순: 요즘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언젠가는 폐지가 되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6.15공동선언 이후로 남북간의 관계가 일부 개선된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추로도 북한의 행동을 보면 아직도 대남 적화혁명전략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북한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무용론 철폐론을 주장하는 건 안보상황을 감안할 때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아직은 북한이 내부적으로 변화를 안주고 있기 때문에 폐지를 말하는 건 때가 아니다 라는 말씀이군요. 지금까지 기본 입장을 들었고 이제부터 자유롭게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물: 반물이는 국가 보안법을 폐지하면 북한이 사회주의 운동이라든가 간첩 활동 들이 수월해 질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함으로써 북한에게 믿음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 북한의 변화를 주지 않을까요??

반물: 하지만 여전히 대남선동공세 및 유화 -고착 -강경- 유화 국면을 거듭하는 남북당국자 회담 등의 행태에서 북한이 대남 적화 혁명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으므로 평화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찬물: 하지만 북한이 하는 행동은 한계점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이런 유화-고착-강경-유화 국면을 거듭하는 것은 우리가 강경책으로 나오지 않을 것을 알고, 우리가 유화정책으로 나오게끔 유도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행동이므로 한계점이 있습니다.

사회: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견해차가 큰 것 같군요.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쯤 얘기하고 우선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면 정말 우리나라가 혼란에 빠질지 생각해보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반물의 의견은 어떤가요?

반물: 국가보안법은 북한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 될 경우에 남한 각지에서 반체제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어떻게 대처할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찬물: 그런 문제는 별 걱정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더라도 형법으로 보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국가보안법이 굳이 없더라도 보완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반대측 의견 들어보죠.

반순: 네, 찬순의 의견에 일부분 동의합니다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이 있었기 때문에 법 조항을 적용시키기 수월했고 그로 인해 아직까지는 남한 사회를 뒤집으려고 하는 사회주의혁명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찬순: 반순의 의견처럼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 조항을 적용시키기 수월 했다는 것은 곧 아무에게나 법을 적용 시키면 법의 남용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생겼고요.



사회: 선의의 피해자라고 하면 어떤 걸 의미 하는지요?

찬순: 예를 들면 민주화를 위해 힘쓰던 민주화 인사나 통일 운동을 위해 힘쓰시던 분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유신 시절에 유신 반대를 외쳤던 사람들도 모두 빨갱이라고 몰리던 그 시절, 거기에는 국가보안법이 적용되곤 했습니다. 특히 7조 찬양 고무 죄는 법을 적용 시키는 사람을 잣대로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

반물: 하지만 그 후로 계속 국가보안법이 개정되면서 91년 7차 개정이후에는 이전보다는 적용하기 어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신중해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찬물: 그렇죠. 하지만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 이르러 국가보안법의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3047명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고 그 중에 2761명이 7조 찬양 고무 죄로 구속되었습니다.

사회: 그렇다면 7조만 폐지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찬순: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완전 폐지니깐 요. 오남용 사례가 많기 때문에 폐지를 생각하는 거구요. 7조 자체가 자의적 해석이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폐지가 필요한 겁니다.

반순: 7조 자체를 폐지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김일성을 찬양하고 집회를 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7조의 용어를 명확히 해서 국회에서 개정을 하던가 해야지 국민들이 이것이 문제다 해서 급히 폐지시키려고 하는걸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 지금 7조 찬양 고무 죄를 폐지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찬물이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찬물: 네. 7조를 폐지시켜도 뭐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김일성 찬양하고 사회주의 선전하면 그냥 미친 사람이 떠른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죠. 이러다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하고 김일성 찬양을 하면 '어 이거 아닌디' 라고 생각할 겁니다. 북한을 일방적으로 면하고 남한사회를 부정하는 세력이 있다면 내란예비 음모죄로 충분히 적용 가능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시법을 적용 하던가 독력으로 나가면 독력으로도 처벌할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이 형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 형법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찬물: 네.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형법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는다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형법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군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폐지돼도 상관없다는 입장이지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반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반물: 형법으로 있으니깐 폐지한다는 거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부패방지법은 왜 만들었을까요?? 굳이 안 만들어도 형법에 다 있으니깐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패방지법을 만든 것이죠. 국가보안법도 이렇게 보면 똑같다고 할 수 있죠.

사회: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양측의 의견이 팽팽해서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끝내고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토론을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마지막 의견 발표 해주십시오.

찬물: 네. 남북화해의 시대를 맞아서 아직도 냉전의 상징인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 문제가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를 보여 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수록 충분한 절차를 거치고 검증을 거친 후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꾸준한 대화와 타협만이 이 문제를 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 그리고 반물이 말해주시죠.

반물: 역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많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 폐지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이 현 정부가 가지고 있을 텐데요. 폐지하자니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유지하자니 북한과의 관계가 걱정되고 많은 갈등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러한 문제들은 국민들과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폐지해도 늦지 않지만 아직은 합의도출이 안 된 상황에서 폐지는 시기상조 같습니다.

사회: 찬순이 이어서 말해주시죠.

찬순: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 한 다해도 북한이 당장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거니와 쳐들어오면 우리가 가만히 못 있죠. 자위권을 발동해도 되고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안보상황으로 끌어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더 화해와 평화적인 관계로 나가서 국가안보가 현 상황보다 나아질 때는 폐지가 되겠죠. 지금은 북한과의 관계를 통해 더욱더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 끝으로 반물이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반물: 저도 오늘 하루 토론을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나아지겠죠. 국가보안법의 원래 취지대로 사용되고 오해의 소지를 줄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이 자유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지 무조건 악법이다 하면서 폐지를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사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 한 것을 종합하면,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탄압할 수 있는 남용의 소지가 있어 폐지되어야 하고, 폐지되어도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다라는 의견과 국가보안을 위한 효과적인 법이므로 존속하되 인권탄압 등 문제점은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으로 압축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전 속도를 보서는 끝이 안보일 것 같군요. 계속해도 모자랄 것 같으나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이 문제는 계속 토론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토론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열띤 토론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죠. 다음주에 다른 주제 갖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결과 분석 및 논의



1) 결과 분석

2004년 3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탐구공동체 수업 모형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안을 실제로 수업 현장에 적용한 후, 대기고등학교 1학년 11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 적용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1> 탐구공동체 수업에 대한 참여도

설문 1. 도덕시간에 이루어진 탐구공동체 수업에 어느 정도 참여한다고 생각합니까?			
번호	내 용	응답인원(명)	%
①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7	6.1
②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38	33.4
③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62	54.4
④	거의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	7	6.1

탐구공동체 수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도는 39.5% 정도 나타났고,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학생도 54.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이 생각보다 낮게 나타난 결과는 그 동안에 탐구공동체 토론 수업을 많이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탐구공동체 토론수업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낮았기 때문이라 추정된다. 탐구공동체 토론수업을 자주 하다보면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으로 변화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표 12> 탐구공동체 수업을 위한 근거(탐구지) 마련(복수응답 가능)

설문 2. 도덕시간에 이루어진 탐구공동체 수업을 위한 근거(탐구지) 마련은 주로 무엇을 이용합니까?			
번호	내 용	응답인원(명)	%
①	자신의 생각	48	42.1
②	인터넷 활용	105	92.2
③	인쇄 매체(신문, 책, 잡지 등)	21	18.4
④	방송 매체(라디오, TV 등)	9	7.9
⑤	지인과의 대화(친구, 부모, 친인척 등)	5	4.4
⑥	기타		

탐구공동체 수업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 마련인데, 근거 마련을 위한 도구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인터넷 보급률 강대국답게 가정이나 학교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의 활용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그 동안에 갖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한 근거 마련에도 42.1%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인쇄매체를 통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는 18.4% 밖에 되지 않았다. 오늘날 학생들이 인쇄매체보다는 인터넷을 더 많이 이용하는 세대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소수 의견으로는 방송 매체 활용과 지인과의 대화 속에서 근거를 찾는 경우도 있었다.

<표 13> 탐구공동체 수업을 위해 가져야 할 태도(복수응답 가능)

설문 3. 도덕시간에 이루어진 탐구공동체 수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번호	내 용	응답인원(명)	%
①	소신껏 자신의 주장을 펴는 태도	47	41.2
②	다른 사람의 주장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태도	56	49.1
③	공동체별 협동하는 태도	22	19.3
④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태도	52	45.7
⑤	기타	1	0.8

탐구공동체 수업을 위해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는 ‘다른 사람의 주장을 진지하게 듣는 태도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태도, 그리고 소신껏 자신의 주장을 펴는 태도’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사회 생활을 하는데도 매우 바람직한 태도라 생각된다. 우리 사회가 민주적인 사회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청소년시기에 사회 발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태도와 타인의 주장을 경청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육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공동체별 협동하는 태도가 19.3%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의외의 결과라 생각한다. 사전에 공동체별로 협동하는 탐구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탐구공동체 수업

을 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표 14> 탐구공동체 수업이 ‘공동체에 대하여 배려하는 태도’ 함양에 미친 결과

설문 4. 도덕시간의 탐구공동체 수업이 ‘공동체에 대하여 배려하는 태도’ 함양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번호	내용	응답인원(명)	%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9	7.9
②	약간 도움이 되었다	72	63.2
③	그저 그렇다	30	26.3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3	2.6

탐구공동체 수업의 주 목표인 ‘공동체에 대한 배려하는 태도’ 함양에 대한 설문 결과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설문 결과를 보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71.1%로 어느 정도 만족한 결과이나, ‘그저 그렇다’와 ‘도움이 되지 않았다’의 대담도 28.9%로 나타나 앞으로 탐구공동체 수업을 하는데 참작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탐구지 조사와 탐구 질문지 작성을 하는 가운데서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많이 형성된 것 같다.

설문 4-1. 도움이 되었다면 왜(무엇 때문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 학생들이 질문에 대하여 응답한 내용 중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서술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⁷⁴⁾

우선, 자료를 조사하고 탐구질문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동료를 생각하게 되었고, 각자의 지식을 서로 공유하면서 생각을 함께 나누다 보니 공동체의식이 싹트게 되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음으로, 본시 학습과정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상대방의 생각이나 견해를 이해할 수 있었고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는 태도를 버릴 수 있었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과 생각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습관을 익혔으며, 그리고 상대방의 주

74) 나머지 응답한 내용은 부록에 첨부하였음.

장파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 태도도 함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응답했다.

설문 4-2.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왜(무엇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학생들이 질문에 대하여 응답한 내용 중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서술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⁷⁵⁾

우선, 자료를 조사하고 탐구질문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료를 조사하는 학생들만 열심히 하고 전혀 하고자 하지 않는 학생도 있어서 오히려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다음으로, 본시 학습과정에서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딴 행동이나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 수업 분위기를 해치고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표 15> 탐구공동체 수업이 ‘합리적 문제해결 능력’ 신장에 미친 결과

설문 5. 도덕시간의 탐구공동체 수업이 ‘합리적 문제해결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번호	내용	응답인원(명)	%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13	11.4
②	약간 도움이 되었다	65	57.0
③	그저 그렇다	34	29.8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2	1.8

탐구공동체 수업의 또 다른 목표인 ‘합리적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응답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11.4%로 나왔고, ‘약간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57.0%로 나와, 도움이 되었다고 본 경우가 68.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탐구공동체 수업이 학생들의 합리적인 문제해결 능력 신장에도 도움이 되는 수업이라 생각된다.

75) 나머지 응답 내용은 부록에 첨부하였음.

설문 5-1. 도움이 되었다면 왜(무엇 때문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 학생들이 질문에 대하여 응답한 내용 중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서술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⁷⁶⁾

우선, 자료를 조사하고 탐구질문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조별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탐구 주제에 가장 적합한 탐구지와 탐구질문지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조별 구성원들의 합리적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본시 학습과정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내용을 보면, 타인의 주장을 들으면서 자신이 몰랐던 새로운 사실(근거)을 알 수 있었고 자신의 의견에 대해 여러 각도로 생각할 수 있어서 자신의 의견을 수정·보완할 수 있어서 합리적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 있다.

설문 5-2.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왜(무엇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학생들이 질문에 대하여 응답한 내용 중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은 모르겠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을 들고 있다.⁷⁷⁾

76) 나머지 응답 내용은 부록에 첨부하였음.

77) 나머지 응답 내용은 부록에 첨부하였음.

<표 16> 탐구공동체 수업의 파급 효과(복수응답 가능)

설문 6. 도덕시간의 탐구공동체 수업이 ‘공동체에 대하여 배려하는 태도 함양’과 ‘합리적 문제해결능력 신장’외에 도움이 된 점이 있다면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번호	내 용	응답인원(명)	%
①	자신감	44	38.6
②	학습 의욕이 고취	19	16.7
③	논리적 사고능력 신장	54	47.4
④	구술능력 신장	38	33.3
⑤	협동심	28	26.6
⑥	기타	6	5.2

탐구공동체 수업의 파급효과로는 ‘논리적 사고 능력 신장’, ‘자신감’, ‘구술능력 신장’ 순서로 나타났다. 탐구공동체 수업을 통한 토론학습이 논리적 사고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고, 토론수업을 통한 발표기회의 균등으로 자신감과 구술능력을 갖게되었고, 이러한 자신감과 구술능력으로 학습의욕이 높아졌으며,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필요한 토론학습을 통하여 협동심과 듣기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고 분석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대학입학시 대다수 대학이 입학능력 시험으로 요구하는 구술심층면접이나 논술고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기타의견으로 제시된 것으로는 ‘말하기 능력이 향상됨’, ‘다양한 생각이 존재함을 인식하게 됨’, ‘타인의 의견을 듣는 태도가 형성됨’, ‘반론을 들으면서 새로운 논거를 발견할 수 있다’, ‘배경지식이 쌓인다’, ‘교과 외에 대한 지식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등도 있었다.

탐구공동체 수업의 문제점

설문 7. 도덕시간에 이루어진 탐구공동체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탐구공동체 모형의 문제점을 지적해 달라는 주문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응답한

것은 ‘탐구지 및 탐구질문지 작성시 소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과 ‘본시 학습시 자발적 참여의 부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앞으로 탐구공동체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⁷⁸⁾

탐구공동체 수업에 대한 종합적 평가

설문 8. 도덕시간에 이루어진 탐구공동체 수업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내린다면?

마지막 설문 문항으로 도덕시간에 이루어진 토론학습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내려달라고 했다.

학생들이 내린 평가에는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는 별로 없고,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는 탐구공동체 수업이 갖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설문 문항이 긍정적인 평가를 요구하는 문항처럼 여겨진 것 같기도 하다.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응답해 준 내용은 탐구공동체 수업이 추구하는 ‘공동체에 대한 배려’와 ‘합리적 문제해결 능력 신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는 것과 그 외에 탐구공동체 수업의 과급효과에 대한 것이었다. 반면 부정적이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써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도에 대한 불신, 수업 환경의 조성문제, 수업 과정에서의 경험 부족 등을 지적해 주었다.⁷⁹⁾

2) 논의

본 논문은 탐구공동체를 운영해보고 운영과정과 결과를 고찰하고 평가함으로써 구체적인 고등학교 [도덕] 수업의 교수-학습 방안으로써 탐구공동체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탐구공동체 모형에 활용한 고등학교 [도덕]교육은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공동체

78) 나머지 응답 내용은 부록에 첨부하였음.

79) 나머지 응답 내용은 부록에 첨부하였음.

에 대한 배려의 태도 함양과 합리적인 문제해결 능력의 신장을 기대하였으며, 그 파급 효과로써 논리적 사고능력 신장, 구술능력 신장, 자신감, 협동심 함양 등 여러 가지 효과를 습득하는 데 기여하리라고 보았다.

이러한 목적 하에 고등학교 1학년에 편성된 [도덕] 수업에 탐구공동체 모형을 활용한 결과, 먼저 그 운영과정에서의 논의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탐구주제를 미리 선정하여 수업계획을 학생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탐구주제에 대하여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을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공동체(조별) 편성 과정에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어느 한 조에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공평하게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학생이 인정할 수 있도록 번호순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예다.)

셋째, 탐구지 및 탐구 질문지가 수업에 있어 매우 중요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사가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수집한 사례 중에서 예시문으로 선택된 것을 가지고 교사가 교과나 활동의 목표에 맞게 탐구 질문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넷째, 가능하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탐구지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탐구공동체를 운영할 때마다 매번 똑같은 유형의 탐구지를 투여하면 학생들이 지루해 할 것이다. 탐구지에 변화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비디오 매체를 함께 활용하거나, 만화나 사진도 같이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교수-학습 진행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사는 모든 학생들에 대하여 공평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공평하게 존중해 주는 배려의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교사는 자료를 적절히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고, 토론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법을 터득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분시 학습 시 토론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각 조의 대표가 발표하고 다른 조는 논평하는 방식으로 사회자(학생)가 토론을 진행하고 교사가 마무리를 짓는 수업이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하나의 탐구 질문에 대하여 모든 조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1번 탐구질문에 대하여 1조가 의견을 발표하면 다른 조는 논평하고 별다른 의견 차이가 없으면 다

음 탐구질문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나을 듯 싶다.

일곱째, 평가에 있어서 모든 학생들이 인정할 수 있는 기준 안을 반드시 사전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개인별 평가는 개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보기 위한 것이며, 한 공동체 전체 구성원에게 똑같은 점수를 부여하는 공동체(조)별 집단평가는 구성원간에 협동심과 공동체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공동체별 집단평가에서는 잘 한 학생이나 못 한 학생이나 똑같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잘 한 학생이 불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집단평가에 대한 취지를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고, 가능하면 조별간에 점수 차를 크게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운영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탐구공동체 활동에 대한 설문지 조사 결과, 수업 활동이 탐구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동체에 대한 태도 변화 및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여 우리 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신장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점진적으로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탐구공동체 수업에 대하여 학생들이 지적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체적인 탐구질문이 있어 무엇을 토론해야 할지 막연하던 다른 토론수업이나 수동적인 위치에서 받아들이기만 하던 수업과는 달리 쉽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어 다른 교실수업에서 소외되던 학생들도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 둘째, 보다 알찬 탐구지 제작을 스스로 하고 토론에 활발히 참여하기 위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신문이나 뉴스의 시사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는 점. 셋째,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 반박하는 토론의 과정을 통해 주제에 대한 다양한 생각이 가능해졌다는 점. 넷째, 탐구지 및 탐구 질문지 작성 자체가 공동체활동이어서 구성원들끼리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좋았다는 점. 다섯째, 다양한 읽기 자료가 제공되어 교과서 위주 수업보다 흥미 있고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다는 점. 여섯째, 수업 후 수행평가 과제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수업과정이 평가가 되어 공개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수업

시간이 알차게 이용되고 수업이후에 수행평가로 허비되는 시간이 없어 좋다는 점 등을 들었다.

수업 후 교사가 경험한 탐구공동체 수업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⁸⁰⁾

첫째, 기존수업보다 학생들이 떠들거나 자지 않고 토론규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수업참여도가 높아졌다는 점. 둘째, 수업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수업에 임했던 학생들이 탐구 주제에 대한 관심과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 셋째, 소극적인 학생들도 수업 분위기에 따라 어느 정도 적극성을 띠게 되었다는 점. 넷째,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개진하며 활동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인식과 사고를 바르게 고쳐갔다는 점. 다섯째, 도덕수업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가 어느 정도 높아졌다는 점. 여섯째, 토론을 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사회 문제나 현상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는 점. 일곱째,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부정적으로 각인되었던 학생들에 대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학생들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이다.



80) 권순덕(2003), “고교 도덕과 탐구공동체 지도사례”에서 평가한 부분과 공통적인 부분이 있음.

V. 결 론

교육의 성과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 받아들일 때 나타나게 된다. 도덕수업에서도 마찬가지다. 도덕수업다운 교수활동을 하는 교사와 도덕수업에 공감을 하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때 도덕수업의 성과는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도덕수업과 관련된 논란이 있을 때마다 느끼는 점은 아직도 교사와 학생들이 도덕수업을 다른 교과와 차별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적으로는 교사의 도덕 수업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도덕 수업이 지식을 가르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의적 목표와 행동적 목표를 동시에 이루어야 하니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⁸¹⁾

도덕 교사들이 적절한 수업 모형의 선택과 교수기법의 활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덕 수업에 가장 적절한 수업 모형을 찾지 못했거나 현실적인 이유로 수업 전에 준비를 못해서 도덕 수업다운 수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본 논의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써 탐구공동체 모형을 제시하고자 했다. 여러 기준들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훌륭한 작품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 요소 중의 경쟁적인 두 가지 대안이 있을 때 그 대안들을 다른 요소들과 대조하는 가운데 한 대안은 다른 대안보다 더 어울린다고 판단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탐구공동체를 통하여 실제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서 도덕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하다보면 합당한 해결책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탐구공동체 방법은 구성원들이 공동체적 탐구를 통해서 최선의 해결책을 강구해 가는 방법이다.⁸²⁾ 이미 알려진 바대로 탐구공동체에서 수업도 다양한 교수기법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본 논의에서는 도덕적 탐구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토론을 통한 수업 모형이 적절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토론을 할 수 있는 생각거리 제공은 탐구지 및 탐구 질문지 활용이 적합

81) 김대군(2004), 전계서, p.88.

82) 박진환(2000), “도덕판단에 대한 정합적 접근”, 「국민윤리연구 제52호」, p.248.

함을 정당화하고자 했다.

그런데 토론수업에도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절대적인 시간의 부족과 자발적인 참여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물론 수업을 통해 흥미를 느끼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러한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교사의 강압적인 동기 부여와 타율적인 참여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일회성 또는 전시성 수업에 그치는 데도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학년초에 탐구공동체 활동을 통한 토론수업을 정점으로 하는 교과과정을 편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수행평가를 활용하면서 학생들의 관심을 극대화시키고, 다른 교과와 관련하여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수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탐구공동체 수업은 학생들에게 합리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탐구공동체의 '탐구'는 국어, 수학, 과학, 사회, 도덕 등 각 교과수업에서 토론 활동을 통해 합리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논리적인 사고능력을 기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탐구공동체의 '공동체'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타인 존중과 협동심 등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교육에서는 상상력과 창의성을 억압함으로써 논리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반면, 탐구공동체 활동에서는 탐구를 비판과 구성이 교차하는 과정으로 보고,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를 병행하여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탐구공동체 활동의 이상은 구성원들이 동일한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각자의 방식으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토론 과정에서는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보다 더 강력하거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⁸³⁾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도덕]수업의 모형으로 탐구공동체가 실시되어야 할 정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탐구공동체는 도덕적 사고력과 가치판단 능력 개발과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성향 함양이라는 도덕 교육의 목표와 부합할 수 있다. 탐구공동체 형성은 곧 하나의 작은 사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 공동체의 목적은 도덕적 문제를 함께 토론해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들도 그 공동

83) 이정화(2002), 전계서, p.10.

체 속에서 공동의 탐구를 통하여 협력하고 서로 다른 관점을 익히고 또 배려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 가는 방식을 배우게 되며 이는 학생들의 사회적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체험과 계기가 될 수 있다. 둘째, 탐구공동체를 통한 도덕적 판단은 바른 행동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⁸⁴⁾ 토론을 통하여 언제나 새로운 사실과 의견에 대한 수정 가능성에 입각하여 탐구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개방적이고 유연한 삶의 자세를 지니도록 이끈다. 결과보다는 과정에 대한 끈덕진 관심과 탐구 정신이 학생들의 성격의 주요한 부분으로 자리하게 되며 도덕적 훈화의 많은 페이지를 읽으라고 권하는 것보다 도덕적 판단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셋째, 인격도야의 중요한 장이 된다. 공동체 활동을 통한 배려 윤리의 체득은 정의적 영역의 도덕적 태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탐구공동체는 기본적으로는 합리적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공동체 형성은 공동체적 유대의 가치를 확립시키는 것으로 공동체에 대한 헌신, 희생, 배려와 존중, 관용과 같은 많은 덕들을 요구하고, 또 그 덕들을 습득한다는 점에서 인격 도야의 중요한 장이 되는 것이다.

학교수업에 소홀한 학생들을 탓하고 교사와 학생간의 갈등을 고민하는 것은 시간낭비일 뿐이다.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동적인 탐구분위기가 필요함에도 여러 가지 제약으로 학교수업에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그런 여건 속에서도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 속에서 계속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인간이 바르게 살아가기를 가르치고 배우는 도덕과 수업에서 교사는 학생과 함께 삶과 괴리된 지식이 아닌 일상 생활 속의 생생한 문제를 학생 스스로 고민하며 자주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교실붕괴 현상이 첨예화되고 입시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학교 교육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탐구공동체수업을 통해 확실한 대안과 해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당연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무심코 지나쳐 버리던 사실들에 대해 자료를 찾고 토론을 하며 참여하는 과정, 자신의 비판적 사고, 공동체의식을 형성해 가는 과정 그 자체가 더욱

84) 김희용(2002), “통합적 도덕교육으로서의 철학적 탐구공동체”, 「교육철학 제21집」, p.71.

의미 있다고 본다. 살아있는 지식을 찾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가는 탐구공동체 수업이야말로 흔들리는 오늘날의 도덕과 교육에 바람직한 교수-학습 방안으로 확산시킬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탐구공동체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년초에 1년간의 수업 계획을 정확히 세워야 할 것이다.

둘째, 학생들이 탐구공동체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지속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탐구지 제작에 있어 보다 다양한 영역(예를 들면, 동화같은 짧은 이야기, 만화, 영화 등)과 요즘 실제적으로 부딪히고 살아 있는 현실적 문제나 상황을 선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탐구 주제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공동체별로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탐구지 및 탐구 질문지가 수업의 성과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도구이므로, 탐구지 및 탐구 질문지 제작에 학생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탐구공동체 수업 활동의 토론 과정에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산만한 수업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지도가 필요하다 하겠다.

여섯째, 평가는 학생들의 대학진학에도 영향을 끼치는 요소임으로, 평가의 기준에 대한 학생들의 정확한 인식과 교사의 공정성이 특히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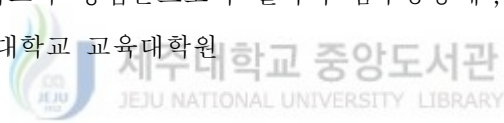
참 고 문 헌

<단행본>

- 강병재(2003), 「토론학교」, 여름언덕
- 강태완 외(2003), 「토론의 방법」, 커뮤니케이션북스
- 교육부(2000),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 도덕」
- 교육인적자원부(200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제
- _____ (2003), 고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운영 자료
- 국정도서편찬위원회(2004), 「고등학교 도덕」, 교육인적자원부
- 바루흐브로디(1983), 「토론수업을 위한 응용윤리학」, 황경식 역(2000), 철학과 현실사
- 박병기·추병완(1996), 「윤리학과 도덕교육」, 인간사랑
- 원만희(1997), 「논리로 읽는 세상」, 철학과 현실사
- 이중구(2003), 「고등학교 화법」, 세기문화사
- 이연택(2003), 「토론의 기술」, 21세기북스
- 1중도서편찬위원회(2004), 「고등학교 도덕 교사용지도서」, 교육인적자원부
- 정문성·김동일(1999), 「열린 교육을 위한 협동 학습의 이론과 실제」, 형설출판사
- 정선민·조성민(2001), 「토론이 된다, 논술이 된다-원리편」, 사계절
- 조성민(2003), 「인성과 창의성 계발을 위한 NIE 탐구공동체 활동프로그램」, 교육과학사
- 추병완(1999), 「도덕 교육의 이해」, 백의
- 한순미(2000), 「비고츠키와 교육」, 교육과학사
- 허병두(1997), 「신문활용 교육이란 무엇인가」, 출판법인 중앙
- _____ (1998), 「문제는 창조적 사고다」, 한겨레신문사

<학위논문>

- 김복실(2003), “효율적인 말하기 능력 신장을 위한 토론학습 지도 방안”, 석사학위 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을임(2003), “토론식 수업을 통한 초등학교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종순(1999), “학습자의 인지양식에 따른 딜레마 토론수업의 효과”,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양동안(2000), “도덕과 교육에서 합리적 가치판단력의 수행평가 방안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이정화(2002), “철학적 탐구공동체 활동이 유아의 언어 및 의사 소통 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진주산업대학교 경영대학원
- 정병남(2001), “고등학교 윤리과 탐구공동체 수업이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전막선(2003), “도덕교육 방법론으로서 철학적 탐구공동체”, 석사학위논문,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 논문>

- 김대군(2004), “도덕 탐구공동체 수업에서 이야기 활용에 관한 연구”, 「윤리 교육 연구 제5집」, 한국윤리교육학회
- 김희용(2002), “통합적 도덕교육으로서의 철학적 탐구공동체”, 「교육철학 제21집」
- 박진환(2001), “도덕 판단에 대한 정합적 접근 -철학적 탐구공동체 방법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국민윤리연구 제52호」
- _____ (2001), “철학적 탐구공동체 방법을 통한 인격교육”, 「경상대학교 국민윤리 연구 제53호」
- 서강식(2001), “도덕과의 통합적 평가 방안”, 「도덕과 교육론」, 세기출판사
- 임용경(2001), “도덕과 목표설정의 기본 이론과 준거”, 「도덕과 교육론」, 세기출판사

조성민(1998), “가치판단능력 신장을 위한 도덕·윤리과 탐구수업과 평가,
 「중등 도덕·윤리과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서울특별시 교원연수원
 _____(2000), “탐구공동체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윤리교육연구 제3집」, 한국교
 원대 도덕·윤리교육학회
 _____(2002), “도덕과 탐구공동체 수업과 평가”, 「도덕과 교육 14호」
 _____(2003), “민주시민의 자질 개발을 위한 탐구공동체 운영 방법”, 「사회과학
 연구 제4집」, 한국교원대 사회과학연구소
 지영선(2002), “탐구공동체 수업모형 연구와 활용방안”, 「윤리교육연구 제2집」,
 한국윤리교육학회

<기타>

광주광역시교육청(2002), “토론학습 길라잡이”, 「토론학습실천사례집」
 박성철(2003), “교과재량활동을 통한 탐구공동체 지도사례”, 「교육마당 21」, 7월
 호, 교육인적자원부
 권순덕(2003), “고교 도덕과 탐구공동체 지도사례”, 「교육마당 21」, 7월호, 교육
 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2001), “탐구공동체 수업의 이론과 지도사례”, 「교육마당 21」
 부산광역시 양덕초등학교(1999), “신나는 토의, 즐거운 재량시간”, ‘99교육부 지정
 열린교육 시범학교 실천사례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2002), “제7차 교육과정의 이해 및 적용”, 「2002 연수 자
 료」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2001), “토의·토론학습의 실제”, 2001교육방법혁신을위한
 교단지원자료
 조선일보 2004. 09. 14
 한겨레신문 2004. 08. 16

<Abstract>

**A case study for moral education in high school
applied "Community of Inquiry"***

Hong, Seong-Ho

Ethic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Gil-Hyun

Today, we're living in a time of rapid changes. The society we live in is faster in the pace of innovation and wider in the width of change than any past society. It is called a globalized, information-oriented, pluralistic society. In this society we succumb to moral crises such as topsy-turvy values, the absence of social justice, the trend to make light of one's life, the lack of a spirit of cooperation, the flood-tide of selfishnes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To overcome these moral crises and live as a sound and moral human being, the role of school education is much more important now than at any other time.

In the serious moral crises of modern society, "Community of Inquiry" helps students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the world and improve their ability to solve problems by helping each other. When the absence of public education is becoming more evident, new teaching strategies in moral education like "Community of Inquiry" are presented as a alternative to the existing strategies in moral education.

This study shows the actual meaning of "Community of Inquiry" applied to moral classes from both a theoretical and a practical position.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5.

"Community of Inquiry" extends to autonomous thought, the ability to solve problems, the ability to make decisions. It cultivates an open-mind and tolerance so people don't hold fast to their views and accept other's opinions. This teaching-learning model leads to students thoughtful consideration and compromises.

Although we can't find definite alternatives or answers through "Community of Inquiry" to participate in a discussion ignored facts or form self-criticism thought and cooperation is more meaningful. "Community of Inquiry" finding a practical knowledge and solving by oneself can be a desirable teaching-learning plan because there are several reasons to propagate "Community of Inquiry"



부 록



부록 1.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은 탐구공동체 교수-학습 모형을 활용한 고등학교 [도덕]수업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설문은 단지 연구의 목적으로만 이용되므로 여러분이 평소 탐구공동체 수업을 진행하면서 생각하고 느꼈던 점을 설문 문항에 따라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 전공

홍 성 호

탐구공동체 수업에 대한 참여도

설문 1. 도덕시간에 이루어진 탐구공동체 수업에 어느 정도 참여한다고 생각합니까?

번호	내 용	응답인원(명)	%
①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②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③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④	거의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		

탐구공동체 수업을 위한 근거(탐구지) 마련(복수응답 가능)

설문 2. 도덕시간에 이루어진 탐구공동체 수업을 위한 근거(탐구지) 마련은 주로 무엇을 이용합니까?

번호	내 용	응답인원(명)	%
①	자신의 생각		
②	인터넷 활용		
③	인쇄 매체(신문, 책, 잡지 등)		
④	방송 매체(라디오, TV 등)		
⑤	지인과의 대화(친구, 부모, 친인척 등)		
⑥	기타		

탐구공동체 수업을 위해 가져야 할 태도(복수응답 가능)

설문 3. 도덕시간에 이루어진 탐구공동체 수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번호	내 용	응답인원(명)	%
①	소신껏 자신의 주장을 펴는 태도		
②	다른 사람의 주장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태도		
③	공동체별 협동하는 태도		
④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태도		
⑤	기타		

탐구공동체 수업이 ‘공동체에 대하여 배려하는 태도’ 함양에 미친 결과

설문 4. 도덕시간의 탐구공동체 수업이 ‘공동체에 대하여 배려하는 태도’ 함양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번호	내 용	응답인원(명)	%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②	약간 도움이 되었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설문 4-1. 도움이 되었다면 왜(무엇 때문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설문 4-2.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왜(무엇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탐구공동체 수업이 ‘합리적 문제해결 능력’ 신장에 미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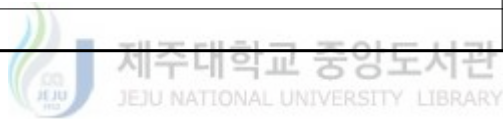
설문 5. 도덕시간의 탐구공동체 수업이 ‘합리적 문제해결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번호	내 용	응답인원(명)	%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②	약간 도움이 되었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설문 5-1. 도움이 되었다면 왜(무엇 때문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설문 5-2.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왜(무엇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탐구공동체 수업의 파급 효과(복수응답 가능)

설문 6. 도덕시간의 탐구공동체 수업이 ‘공동체에 대하여 배려하는 태도 함양’과 ‘합리적 문제해결능력 신장’외에 도움이 된 점이 있다면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번호	내 용	응답인원(명)	%
①	자신감		
②	학습 의욕이 고취		
③	논리적 사고능력 신장		
④	구술능력 신장		
⑤	협동심		
⑥	기타		



탐구공동체 수업의 문제점

설문 7. 도덕시간에 이루어진 탐구공동체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탐구공동체 수업에 대한 종합적 평가

설문 8. 도덕시간에 이루어진 탐구공동체 수업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내린다면?

부록 2. 응답 내용

설문 4-1. 도움이 되었다면 왜(무엇 때문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 학생들이 질문에 대하여 응답한 내용.

-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서로 협조하다 보니 협조한 만큼 빠른 시간에 과제를 끝낼 수 있었다.
-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여럿이 함께 협력하여 하게됨으로써 어려운 과제도 쉽고 편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 같이 고생하면서 친구들과도 더욱 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공동체(타인)에 대한 배려하는 태도 함양’에 도움이 되었다.
- 도덕적 논점에 대한 서로의 의견이 상충하면서 서로의 생각이 조금씩 진지하게 변화되었다.
- 여러 사람의 의견을 세심하게 들어보면서 소수의 의견에도 경청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고, 배려하진 못하더라도 공동체에 대해 조금씩 다른 자세를 지닐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평소 지나치던 사회적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어 우리 사회 전체의 공동체에 대하여 새롭게 다가서는 기회가 되었다.

설문 4-2.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왜(무엇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학생들이 질문에 대하여 응답한 내용

- 탐구공동체 수업 자체가 소수만 참여하는 수업이 될 수 있다.
- 논리적 근거보다는 고집스런 성격으로 자기 주장을 끝까지 우기는 학생도 있어 학생들 간에 감정이 악화될 수도 있다.
- 탐구공동체 수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을 수 있다.
- 수업은 수업일 뿐 실생활에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설문 5-1. 도움이 되었다면 왜(무엇 때문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 학생들이 질문에 대하여 응답한 내용

- 주장에 대한 논리성 점검·확인, 의견 교환, 올바른 선택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생각할 수 있는 힘, 근거 찾는 방법 터득, 개방적인 태도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문제해결능력 신장’에 도움이 되었다.

설문 5-2.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왜(무엇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학생들이 질문에 대하여 응답한 내용

-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에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가 없다.
- 자발적 참여가 부족할 경우 누군가를 지적해야 한다는 점에서 합리적 문제해결 능력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 수업 시간이 토론수업하기엔 짧아서 새로운 사실(근거)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 도덕적 논점에 대한 해결책이나 결론이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해결능력과는 거리가 있다.
- 역할을 나누어서 하다보니 자기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만 깊이 있는 준비를 해서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탐구공동체 수업의 문제점

설문 7. 도덕시간에 이루어진 탐구공동체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학생들이 지적해 준 탐구공동체 수업의 문제점들을 정리하여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하나의 공동체(조)에 여러 명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열심히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같은 조원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소수의 흥미활동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 토론수업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에 친구간의 감정적 싸움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 탐구지 및 탐구질문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날 경우 다툼이 생길 수 있다.
- 성격적으로 내성적인 학생이나 자신감이 부족한 학생은 토론수업 시 자발적 참여도가 매우 낮다.
- 주어진 시간에 비하여 탐구 주제가 어렵거나 범위가 방대하여 의견을 종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교실 안 탐구 수업도 중요하지만 교실 밖 탐구 수업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
- 공동체 별로 조사해 온 탐구 주제의 자료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 준비가 부족한 경우 수업진행 자체가 무리다.
- 탐구 주제에 대한 자료를 찾고 질문지를 작성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 탐구공동체 교수-학습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이 있다.
- 많은 학생들이 공감을 하고 관심을 갖는 주제의 선정이 필요하다.
-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으로 내용의 깊이가 없다.
- 중복하여 발표하는 경우가 있고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
- 수업이 산만해 지는 경우도 있다.
-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수업이라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

탐구공동체 수업에 대한 종합적 평가

설문 8. 도덕시간에 이루어진 탐구공동체 수업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내린다면?

학생들이 응답해 준 종합적 평가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무엇보다도 기존의 수업 방식과는 다른 방식이므로 흥미를 느끼는데 성공적인 수업이었고, 준비가 부족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경우 활발한 수업이 이루어지기 힘들고 몇몇의 학생들만 참여하는 수업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탐구공동체 수업의 파급 효과는 대단할 것으로 생각된다.
- 탐구공동체 수업 내용이나 방법은 바람직하지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으면 목표하는 바를 성취하기가 어려우므로 모든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

- 입시위주의 학교 수업에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얻는 계기가 되어서 나름대로 바람직한 수업이라 생각한다.

-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준비 기간을 많이 할애하여 보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 탐구지와 탐구질문지를 만들면서 친구들과 더욱 친하게 되었고, 본시 학습을 하면서 논리적인 사고능력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 토론수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나름대로 자신감과 발표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 탐구공동체 수업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 더 깊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수업이 되었다고 본다.

-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들을 공유하고 발표하면서 구술능력과 논리적 사고력, 배경지식의 축적, 타인에 대한 배려, 합리적인 문제해결 능력 등을 함양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 공동체 활동으로 협동심을 키워주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감을 키워주는 데는 효과적인 수업이었으나, 자발적 참여자가 많지 않아 이 점을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

- 성격이 내성적이거나 발표 자체를 두려워하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 수업이 되었으면 한다.

- 수업의 의도나 결과도 좋은 편이나 현실적인 제약(많은 학생 수, 시간 부족, 학생별 흥미도와 참여도의 차이) 때문에 그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된다.